ISSN 2672-0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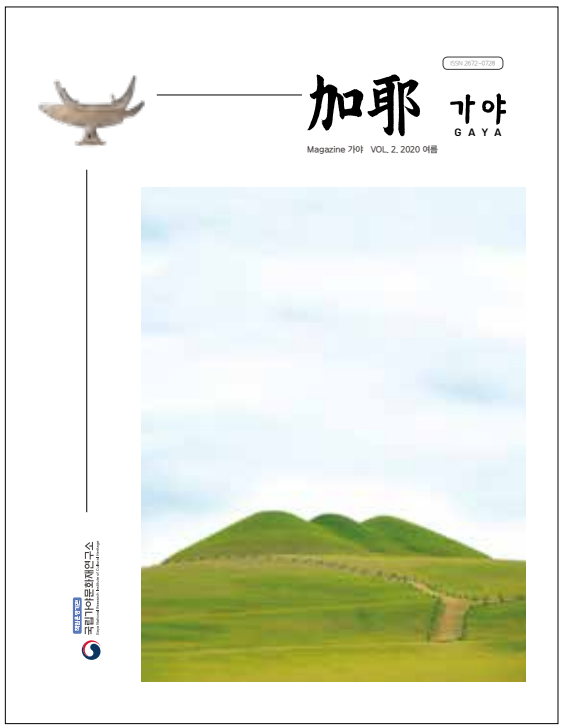


加耶 가야 GAYA

Magazine 가야 VOL. 2. 2020 여름



책임운영기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VER STORY

Magazine 가야 VOL.2.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30주년 기념호입니다.
표지 사진은 고성 송학동고분군이며,
위 토기는 마산 현동 목곽묘 387호 출토 배모양토기입니다.
표지의 한글 및 한자 글씨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김천수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Magazine 가야 Vol. 2.
발행일 2020년 06월 18일 **발행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전화** 055) 211-9000 www.gaya.go.kr
총괄 박종익 **기획** 양숙자, 안경화, 서미례 **행정지원** 강형도
집필 남재우, 정동락, 박은지, 오동선, 김정호, 심재용, 황철주, 박종익, 안경화, 서미례
디자인 (주)오엔 055) 262-2116 http://oan.kr
이 책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의 협의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책임운영기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加耶 가야GAYA

Magazine 가야

Contents

발간사 04

가야 문헌사 연구 _ 남재우 06

내 고향 가야유적

1) 고령의 가야유적 _ 정동락 10

2) 고성의 가야유적 _ 박은지 16

가야유적 최신 발굴조사 현장 소개

1)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_ 오동선 22

2) 창녕 퇴천리 토기가마터 _ 김정호 30

가야유적 출토 유물 소개

1)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장식마구류 _ 심재용 38

2) 창원 현동유적 배모양토기 _ 황철주 44

가야문화유적 상설전시 기관 소개

합천박물관 54

창녕박물관 55

가야유적 연구자료 소개

『가야사 총론』(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56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개요 57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30년사 발자취 _ 박종익

1) 회고와 전망 58

2) 가야사 동행길

① 연도별 주요성과 64

② 기사 스크랩 66

기타

가야유적코스(김해) 70

발간사

가야만을 온전히 조명한 특별전이 서울과 부산에서 연이어 진행되고,
가야 유적 발굴조사, 학술대회 소식들도 연이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야를 온전하게 밝히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가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언론과 논문, 발굴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해 어렵게 공유되고 있는 가야 관련 소식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 빠르고, 쉽게 소개하기 위해 가야 관련 소식지《Magazine 가야》를 2019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Magazine 가야》VOL.2에도 가야 관련 연구성과들과 가야 관련 사업 현황 등 최신 행사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편부터는 가야 관련 유적 답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답사 코스를 덧붙였습니다. 아무쪼록 가야를 보다 가깝게 느끼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가야문화권 유적 조사·연구를 위해 설립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30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30주년을 돌아보니 작고 초라하게 시작하였으나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었음을 스스로 자축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있기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들,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향후 자랑스럽고 멋진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열정과 도움을 기대하며,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6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박 종 익**



남재우 | 창원대학교 사학과

가야 문헌사 연구

가야 加耶, 伽耶, 伽倻.

가야 한자어 : 고대사와 관련된 각종 문헌에는 '加耶' '伽倻' '伽耶' 세가지 모두 혼용해서 사용

연구의 시작과 진전

역사연구는 현재와 무관하지 않다. 가야사 역시 연구가 시작되고 확대된 것은 당시의 사회적 요구 때문이었다.

가야사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연구는 조선후기 실학자들에 의해서였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려는 실학자들의 역사인식이 가야사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전후 일본인에 의한 가야사 연구는 조선지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불행한 가야사 연구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 '임나일본부설'이 등장했다. 해방 이후의 한국 역사학계에는 식민사학 극복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래서 가야사도 연구대상이 되었지만, 가야의 실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민족 자존심을 만족시키는데 급급했다.

가야 주체의 가야사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1980년대의 새로운 역사인식 출현이 그 배경이 되었다. '민중(民衆)사관'이 등장했다. 지배세력 중심의 역사이해에서 벗어나 민중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역사발전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가야사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동참할 수 없었다. 삼국처럼 시간과 공간이 확정되지도 못했고, 발전과정에 대한 얼개도 파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야사연구는 남아있는 기록들로 가야사의 줄거리를 엮어내는 일에 열중했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작도 가야사 연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야문화권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에는 가야제국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집단이 위치해 있었으므로, 가야사를 통해 정체성을 밝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가야사 복원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 '동서화합' 등이 명분이 되었다. 따라서 가야사 연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진전되고 있다.

연구대상, 문헌과 새긴 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가야사 연구는 넓어지고 깊어졌다. 고고자료의 역할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헌에 대한 천착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가야에 대한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가야를 표현하는 나라 이름도 다양하다. 加耶, 伽耶, 伽倻, 加羅, 駕洛 등이다. 가야 주체의 역사서술은 아니지만 가야사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려시대 기록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시대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역고』 등이 있다. 외국사서로는 『삼국지』, 『남제서』를 비롯한 중국기록,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 등이 있다. 「광개토왕비문」, '大王(대왕)'명 유개장경호, '下部思利利(하부사리리)'명 단경호, 창녕 교동11호분 출토 환두대도명문 등의 금석문도 가야사회의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와 「오가야조」는 가야사의 시작과 발전단계를 규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건국신화를 통해 가야 형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고, 가야를 '연맹체'로 이해했던 것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동시에 기록된 '포상팔국전쟁'기사는 가야사회의 내재적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가야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기도 했다.

『삼국사기』에는 가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산발적이고, 백제와 신라의 입장에서 바라본 가야였지만, 가야의 발전과정을 백제와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추정할 수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있는 '대가야의 건국신화'와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에 대한 내용은 가야 중심세력의 변천과 대외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가야연맹론자들에게 전기가야연맹과 후기가야연맹의 교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중국기록은 가야사 연구의 장벽이 되기도 했다. 『삼국지』는 3세기 중엽의 기록으로 가야가 존재했던 당시의 것이다. 하지만 『삼국지』의 삼한 기록과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이 너무 상이하여 한국고대사회의 국가형성 뿐만아니라 가야사의 전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즉, 가야사의 시작을 4세기대로 보려는 시각을 합리화했다. 『남제서』에서 보이는 '가라국왕 하지(荷知)',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이라는 작호는 내용이 소략하지만 가야의 대외적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또한 중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에 가야가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가라국왕'이라는 표현은 왕의 존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대가야의 정치적 성장과 가야제국 내 대가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6세기초의 기록인 『양직공도(梁職貢圖)』는 가야 국명을 여럿 남기고 있어 『일본서기』의 가야 국명과 비교 가능하다.

『일본서기』는 8세기 초에 편찬되었다. 가야와 임나 관련 사료가 풍부하지만 내용과 편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백제본기』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쓰여진 계체기·흠명기는 6세기 전반 내지 중엽까지의 가야사회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백제의 가야지역 진출을 보여주는 기문 · 대사 관련기사,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 529년 '안라고당회의(安羅高堂會議)'와 백제 성왕 주도의 '사비회의' 등의 기록은 6세기대 가야사회를 이해하고, 가야사의 폭을 확대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록이었다. 특히 후기가야의 13국을 명기하고 있는 것은 가야의 존재형태를 보여주는 뚜렷한 근거가 되었다.

새긴 글도 가야사 연구에 화두를 던졌다. '대왕'명 유개장경호는 '대왕'이라는 칭호로 인해 대가야의 정치적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하부사리리'명 단경호는 부체제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지역연맹체단계에서 부체제단계로의 계기적 발전으로 보거나, 대가야가 지역연맹체를 이끌면서 다라국(多羅國) 같은 인근 지역은 부체제로 운영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광개토왕비문」은 4세기 가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비문에 보이는 '임나가라(任那加羅)',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은 가야사 전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근거가 되었다. 광개토왕 남정으로 인해 김해의 가락국[금관가야]이 쇠퇴하고, 내륙지역의 가라와 안라가 가야의 중심세력이 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 사건은 가야의 전기와 후기, 혹은 전기가야연맹과 후기가야연맹으로 나누는 획기가 되었다. '안라인수병'을 고구려에 동조했던 안라국 군대

남재우 | 창원대학교 사학과

로 보는 시각은 고구려-신라와 백제-가야-왜의 대립관계로 인식했던 기존의 견해를 부정했다. 가야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묶는 가야연맹체설에 대한 부정이기도 했다.

창녕 교동11호분 출토 환두대도명문은 신라의 비화가야 진출을 의도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합천 매안리비는 가야의 것인지, 신라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가야비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의 현재

가야문헌연구의 진전으로 인해 가야도 삼국처럼 독립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96년 한국고대사학회 제9회 합동토론회 공동주제가 '한국 고대사회의 지방 지배'였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와 함께 가야도 하나의 주제로 선정되었다. 가야는 이후에도 기획되는 공동주제 속에 포함되었다. 또한 가야사연구자에 의해 '사국시대론(四國時代論)'이 주장되기도 했다.

현재까지의 가야사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야의 국가발전단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다.

'가야연맹체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대되었고, 연맹체설이 가야지역 전체연맹체설, 지역연맹체설, 소지역연맹체설 등으로 분화되었다. '부체제'도 논의되었고, 연맹체가 아닌 '도시국가'라 규정하기도 했다. 가라와 안라의 경우 '귀족합의체제로 운영되는 고대국가'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다. 가야사회를 소국과 연맹이라 하여 고대국가보다 열등한 사회로 규정하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가야는 강대국 사이의 정치적 완충지대, 중립지대로서 교역의 활성화를 지향했으며, 소사회에 기초하여 중국과 한반도, 일본열도에 이르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교역으로 묶어낸 열린 공간으로 이해했다. 즉, 한국 고대국가 발전형태의 다양성을 가야에서 찾으려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둘째, 변한과 가야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었다.

변한을 가야전기로 보는 '전기론(前期論)'과 변한을 가야에서 제외하는 '전사론(前史論)'이 그것이다. '원사론(源史論)'도 등장했다. 삼한이 3국의 기원이므로 삼국의 원사이고, 전사론과 전기론은 모두 삼한을 기원사로 본다는 점에서 원사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변한과 가야의 관계, 구야국(狗邪國)과 가야의 계승관계를 전면 부인할 수는 없지만 변한=가야, 구야국=가야라는 도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가야는 변·진한, 아니면 삼한의 변화발전과정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셋째, 가야사 시기구분도 중요한 문제였다.

변한을 포함한 가야사는 그 획기를 3세기 초나 5세기 초로 이해한다. 3세기 초의 포상팔국전쟁을 가락국의 쇠퇴기로 보거나, 5세기 초 고구려의 남정을 전기가야연맹 해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4세기 초를 가야사 획기로 보는 입장도 있다. 포상팔국전쟁을 4세기 전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가야사회 내부의 변화를 한반도 전체 속에서 파악했던 결과였다. 즉 가락국은 낙랑·대방이 축출되자 왜와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했고, 대가야의 경우도 반로국 시기의 반운리 중심에서 4세기 초 주산 아래의 구릉지인 연조리로 그 중심지를 옮겨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안라국 또한 4세기초에 한단계 진전된 정치집단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개토왕 남정은 가락국의 쇠퇴로 대가야가 가야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교체되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했다.

넷째, 가야 각국에 대한 연구가 증가했다.

가야연맹체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따른 결과였다. 가락국과 대가야 뿐만아니라 안라국, 고자국, 다라국, 비화가야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포상팔국에 해당하는 골포국, 고사포국, 칠포국, 사물국 등에 대한 성과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야사의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가야사회의 내적발전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가야사회의 내재적 발전원인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가야의 사회변화를 이주와 교류로 보았던 입장에서 포상팔국전쟁과 같은 사건을 통해 가야사회 질적변화를 찾게 되었다. 전쟁 원인과 전쟁 이후의 가야사회를 통해 가야의 발전과 변화를 읽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이 가야사회를 전·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여섯째,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었다.

임나일본부설은 설자리를 잃게 되었지만, 가야를 한국 고대사회의 중심축으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은 여전했다. 백제가 4세기대에 가야지역을 영향권 아래 두었다거나, 신라의 가야지역 복속 시기를 앞당겨 보는 연구경향도 여전하다. 창녕지역의 경우 4세기대에 이미 신라가 간접지배했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문헌에 보이는 가야멸망기사는 이러한 추정들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가야사 연구의 진전은 한국 고대사회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동북아시아사회의 실체에도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했다. 이제 가야는 한국고대사의 주변부가 아니라 한국고대사회발전의 중심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집단이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남은 문제와 가야사연구의 의미

그럼에도 가야사연구의 한계는 여전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삼국 중심의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삼국만이 고대국가의 전형이고, 그래서 중심부라는 시각은 가야와 부여를 제외한 삼국사 연구에만 몰두하게 했고, 교육에도 적용되었다. 그 결과 연구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한국 고대사에 대한 인식도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대국가 발전의 다양성을 가야와 부여 등에서 찾으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가야에 대한 문헌자료의 부족도 가야사연구가 넘어야 할 장벽이다. 문헌자료를 되씹고 고고자료를 활용해 보기도 하지만, 삼국처럼 내밀한 사회구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기록의 부족은 다양한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다양한 학문방법을 통한 접근도 필요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가야사 연구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사회상황이다. 현정부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과제설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과제 수행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의문이다. 연구인력,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조건 등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은 인문학이 처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가야사의 복원이 한국 고대사의 완성이다.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영남지역에서 거의 600년 동안 삼국과 함께 독립된 왕권과 영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를 소외시킨다면 고대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고대 영남지역의 역사도 제자리 매김할 것이다. 가야사의 이해를 통해 그 시기 한국 고대사회와 동아시아사회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가야사 연구는 언제나 현재에 서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태식, 2002,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를 제창하며」,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 푸른역사.

이영식, 2016, 「가야사 연구의 시민권 확립과 가설의 사실화」, 『가야제국사연구』, 생각과종이.

학술논문

남재우, 2011, 「식민사관에 의한 가야사연구와 그 극복」, 『한국고대사연구』61.

윤선태, 2013, 「한국 고대사학과 신출토 문자자료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역사학보』219.

주보돈, 2017,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進展을 위한 提言」, 『한국고대사연구』85.

박대재, 2017, 「삼한시기 논쟁의 맥락과 접점」, 『한국고대사연구』87.

남재우, 2017, 「전기가야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고대사연구』85.

박대재, 2017, 「삼한시기 논쟁의 맥락과 접점」, 『한국고대사연구』87.

남재우, 2018, 「가야의 국가발전단계와 가야사연구」, 『역사와세계』54.

남재우, 2019, 「문헌으로 본 가야사의 획기」, 『한국고대사연구』94.

정동락 | 대가야박물관

내 고향 가야유적

1

고령의 가야유적

고령지역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대가야의 도읍지로,
그 중심지인 대가야읍은 가야시대의 유적이 밀집 분포하는 '야외박물관'이다.

대가야 궁성지는 왕과 왕족을 비롯한 최고 지배층이 국정을 돌보고 생활하던 곳이었다. 주산성은 궁성을 방어하기 위한 배후산성이자 유사시 피난하여 외적과 맞서 싸우기 위한 대피성이었다. 아울러, 지산동고분군은 왕과 최고 지배층을 위한 사후세계의 안식처이자 저승 궁궐이기도 했다.

대가야의 도읍이었던 대가야읍 일대에는 가야시대 궁궐과 관청 등 화려한 기와 건물이 즐비했던 궁성지, 궁성을 방어하기 위한 병사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주산성, 주산의 남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위에 역대 왕들이 평온한 안식을 위한 지산동고분군 등이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룬 대가야 왕도의 경관이 마치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대가야 국가의 심장부, 대가야 궁성지

대가야 궁성지는 대가야읍의 서쪽 가장자리에 주산을 배경으로 한 해발 50m 정도의 나지막한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언덕은 동–서로 긴 타원형으로, 동쪽이 넓고 서쪽이 약간 좁아 마치 주걱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둘레는 700m, 면적은 26,000㎡ 정도이며, 높이 5m 내외의 벼랑을 이루는 지형이다. 그 중심부에는 현재 고령향교가 자리 잡고 있다.



1. 대가야 궁성지(해자와 성벽) 발굴조사 모습

대가야의 궁성에 대해서는『삼국사기』등 문헌기록에 단편적인 모습이 전해 온다. 즉, 방어시설인 성곽이 존재했고, 성문의 이름은 전단량(旃檀梁)으로 불렸다. 지금의 고령향교 일대는 일찍부터 대가야 궁성지로 지목되었고, 발굴조사에서는 이른바 '대벽건물지(大壁建物址)'가 확인되었다. '대벽건물'이란 밖에서는 기둥이 보이지 않는 큰 벽으로 된 건물인데, 궁성 내에 건립된 왕궁과 관련된 주요 건축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향교 남쪽 언덕 아래편에 대한 조사에서는 직접적인 궁성지의 흔적이 담긴 해자와 성벽, 성벽을 쌓기 위해 설치한 바닥의 석렬 등이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다. 해자의 폭은 6~8m이며, 성벽의 폭은 6~6.5m 가량으로 추정되었다.

대가야의 궁성은 현재 고령향교가 위치한 연조리의 설상대지를 중심으로 그 동쪽과 남쪽, 서쪽 일대에 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국가의 중심부인 궁성과 왕실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고, 최고 지배층인 대왕이 머무는 심장부였다. 주요 시설로는 방어시설인 흙으로 쌓은 성벽과 그를 둘러싼 해자가 있었고, 내부에는 대벽건물과 기와건물지 등이 확인된다. 궁성의 출입을 위한 성문은 불교적 의미를 담은 전단량으로 불렸고, 해자를 건너기 위한 교량의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대가야 궁성지(대벽건물지) 발굴조사 모습

산성을 쌓아 궁성을 지키다. 고령 주산성

주산성은 대가야읍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주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산은 해발 310m 내외의 나지막한 산으로 두 봉우리가 마치 사람의 귀처럼 생겨서 이산(耳山)으로 불렀다.『삼국사기』등 문헌기록에는 이산성(耳山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주산성과 지산동고분군 모습

주산성은 주산 정상부에 돌로 쌓은 테뫼식[山頂式] 산성으로, 내·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내성과 외성이 시간차를 두고 쌓은 개별 성곽으로 밝혀졌다. 즉, 내성과 외성은 모두 석축성(石築城)이며, 외성이 내성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외성(1차 축조 성벽)은 주산의 6부 능선의 비탈면에 쌓았는데, 전체 둘레가 1,419m 총면적은 104,494㎡ 정도였다. 성벽은 높이 3.5~7m, 폭 4~7m 정도의 편축식이었다. 내성(2차 축조 성벽)은 주산 9부 능선의 평평한 지형을 이용하여 쌓았는데, 전체 둘레 711m, 면적 21,890㎡ 정도이다. 성벽은 높이 3.5m, 폭 5.5m 정도였다. 특히, 내성 안에는 암반을 파서 만든 지하식 저장시설인 목곽고(木槨庫)가 확인되었다. 목곽고는 가야 지역에서는 처음 확인된 것으로, 백제의 축조기술과 도량형이 적용되었다.



4. 주산성 발굴조사 모습

주산성은 발굴조사에서 6세기 전반의 대가야시대에 만든 석축 산성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그간 고고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가야에는 석축산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주산성은 대가야의 궁성을 방어하기 위한 배후 산성으로, 유사시 피난하여 항전하기 위한 대가야 산성 방어망의 최종 거점이었다. 대가야는 평지성으로 축조된 궁성과 그 배후산성인 주산성이 짝을 이룬 초기 형태의 도성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대가야 왕들의 안식처,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지산동고분군은 대가야의 왕도였던 대가야읍을 둘러싸고 있는 주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위에 위치한다. 대가야의 왕도였던 대가야읍을 한 눈에 내려 볼 수 있는 곳에 웅장하게 조성되어 있다. 고분군의 북쪽에는 대가야시대의 산성인 주산성이, 동쪽에는 대가야 왕궁지가 있다. 일찍부터 대가야의 중심 고분군으로 인식되어,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대략 30여기의 대형 봉토 고분과 작은 무덤 400여기 이상이 발굴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가야가 삼국에 버금가는 고대국가로 발전하였으며, 우리 고대사를 사국시대(四國時代)로 파악하는 인식의 배경이 되고 있다.

지산동고분군은 길이 2.4㎞, 너비 100~200m, 면적 830,181㎡의 넓은 범위에 700여기의 봉토분과 작은 무덤 수 만기가 분포한다. 대가야가 고대국가로 성장·발전하는 서기 400년경부터, 신라에 멸망하는 562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주 묘제는 긴 사각형의 구덩식 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이며, 왕을 비롯한 지배층과 다양한 신분층의 무덤들이 모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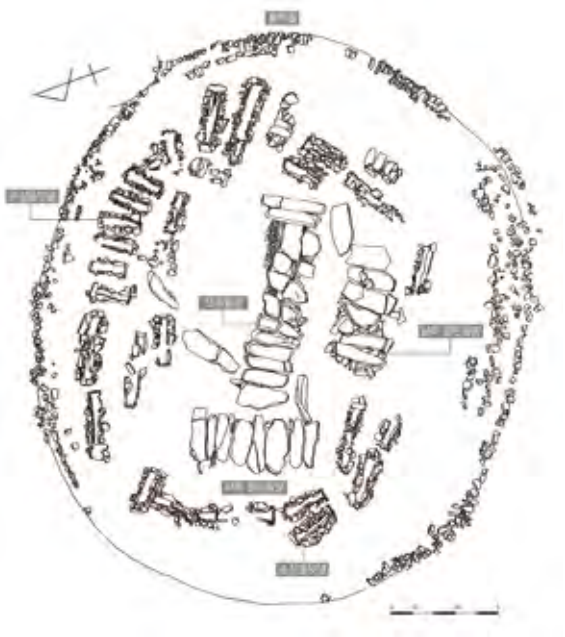
무덤의 내부 구조는 으뜸덧널과 딸린덧널, 그리고 여러 기의 순장덧널로 이루어진 여러덧널무덤[多槨墳]이다. 으뜸덧널은 무덤 중앙에 위치하며, 딸린덧널은 주로



5. 지산동고분군 분포 현황



6. 지산동고분군 전경



7. 지산동 44호분 내부 모습

으뜸덧널과 'T'자 혹은 '11'자 모양으로 배치하였다. 순장덧널을 으뜸덧널과 딸린덧널 주변에 별도로 만든 것이 '대가야식 순장'의 특징이다. 순장덧널은 적게는 1기에서부터 많게는 32기나 되며, 순장자도 한사람에서 40여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고분 속에서는 무덤 주인공이 평소 사용했거나 저승 생활에 필요한 각종 껴묻거리를 넣었다. 껴묻거리는 크게 토기, 장신구, 무기, 말갖춤, 축소모형철기와 살포 등 다양하다. 이들은 '대가야 양식' 혹은 '고령 양식' 등으로 불리며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산동고분군은 가야 지역 최대 규모의 고분군으로 이승과 저승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내세사상과 순장을 비롯한 장례문화, 탁월한 경관과 우수한 토목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1963년 사적 제79호로 지정되었으며, 다른 가야지역 6개의 고분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가야지역 유일의 벽화 고분, 고아동 벽화고분

고아동 벽화고분은 지산동고분군에서 남동쪽으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고아리고분군에 속하며, 크게 보면 범 지산동고분군에 포함될 수 있다. 대가야천과 안림천이 Y자형을 이루면서 회천으로 합류하는 지점을 내려다보는 야산의 나즈막한 산등성이의 남쪽 비탈면에 위치한다. 1963년 도굴로 인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참고문헌

보고서

계명대학교박물관, 1985, 『고령 고아동벽화고분 실측 조사 보고서』.
경북대학교박물관, 2006, 『전대가야궁성지』.
고령군·대동문화재연구원, 2014, 『고령 주산성』Ⅰ.
대동문화재연구원·고령군 대가야박물관, 2014, 『대가야의 고분과 산성』.
대가야박물관, 2015,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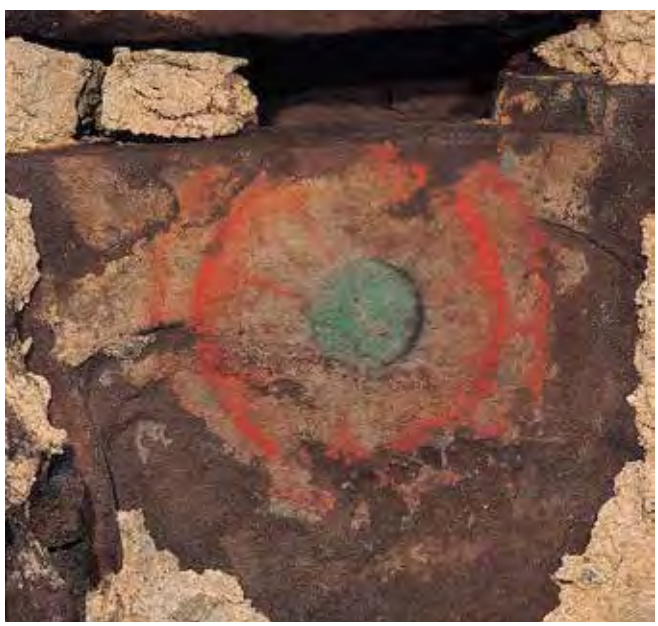
고아동 벽화고분은 정남향을 한 구덩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墳]으로, 둘렛돌[護石]은 직경 18m의 원형이고, 봉분의 높이는 널방[玄室] 바닥 중앙에서 6.2m 정도이다. 널방의 구조는 평면이 긴사각형의 터널 천장식이고, 오른쪽으로 긴 널길[羨道]을 갖추었다. 바닥에는 중(中)자 모양의 배수구가 있고, 그 사이에 너비만 다르고 길이가 같은 두 널받침(棺臺)을 나란히 설치하였다. 백제의 벽돌무덤[塼築墳]을 본 따서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만든 것이 특징이다.

무덤 내부는 전체적으로 조개껍질 가루로 만든 회로 미장하고, 널방과 널길의 천정에는 적색·녹색·백색·갈색 등의 천연 안료로 그린 8판 2중의 연꽃무늬[蓮花文]가 남아 있다. 특히, 적색 안료인 진사(HgS)의 산지는 국내에는 없고, 중국 남부의 귀주성과 호남성 등지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 대가야가 중국 남제와 교류할 때 함께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벽면에서도 넝쿨무늬 또는 풀모양의 그림이 확인된다. 원래 벽면과 천장 전체에 그림을 배치하되, 천장에는 연꽃무늬를 그렸던 것으로 보인다.

가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고분으로, 1968년 사적 제165호로 지정되었다. 고분의 내부 구조는 백제의 영향을 받았으며, 연꽃 그림의 안료는 중국 남조에서 수입한 것으로 파악되어 대가야와 백제, 중국과의 문화 교류 양상을 엿 볼 수 있다. 무덤 내부에 그려진 연꽃무늬는 삼국의 벽화나 유물과 비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대가야의 불교 수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8. 고아동 벽화고분 내부 모습



9. 고아동 벽화고분의 연꽃 무늬

고령군·대동문화재연구원, 2017, 『고령 주산성』Ⅱ.
가온문화재연구원, 2017, 『고령 연조리(594-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발굴조사 약보고서』.

학술논문
최재현, 2017, 「대가야읍내 취락과 대가야궁성」,
『지붕위에 핀 예술, 고령의 기와』,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박은지 | 고성박물관

내 고향 가야유적

2

고성, 바다를 품고 작은 가야를 세우다

고성(固城)은 경상남도 남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비교적 넓은 농경지를 이루고 고성만·당항만의 해안을 접하고 있어 농·어업이 주를 이룬다. 자연지리적으로 선사시대부터 농경문화가 발달하여 청동기시대 유적이 산재하고, 원삼국시대에는 포상팔국(浦上八國)으로 영남일대에 성장한 한 소국(小國)이다. 고성에서의 가야유적은 무덤, 생활, 정치국방유적 등 총 81개소[1]가 확인된다.

'소가야(小加耶)'라 일컫는 고대국가의 지배층 무덤군인 송학동고분군이 위치한 고성읍은 북동쪽의 당항만과 서남쪽 고성만이 내륙 깊이 들어와 작은 구릉의 반도지형을 이룬다. 동쪽에는 거류산, 북서쪽에는 천왕산과 무이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그리고 중앙에는 양쪽 해안의 영향으로 발달된 넓은 고성평야가 자리하고 있는데, 고성읍의 동외동 패총 등 주변 유적의 분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 이 일대가 대부분 바다였지만 훗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지금과의 같은 지형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고성읍은 육로보다는 수로(水路), 남해안을 이용한 교역이 주를 이루었으며 분포한 유적들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고성읍에는 지배층의 고분군인 고성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주거지와 의례수혈이 확인된 제사유적과 해안으로부터 도읍을 방어하였던 토성(土城)이 배치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해상교역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던 가야의 한 나라인 고성의 대표적인 가야유적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고성 동외동유적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고성 동외동유적은 고성읍 동외리 254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송학동고분군에서 남동쪽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발 약 32.5m의 낮은 구릉으로 윗부분은 둥근 형태이며 편평한 지형을 이룬다. 독립구릉처럼 보이지만 남쪽에 위치한 남산으로부터 이어진 구릉이다. 이곳은 '당산(堂山)'으로 과거에는 음력 섣달 그믐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여, '당산패총', '고성패총'이라 부르기도 했다. 유적 주변으로 낮은 평야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바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나, 유적이 형성된 시기에는 해안선이 상승하여 조석(潮汐)의 영향을 받는 지형이었을 것이다.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가야유적분포현황 및 보존 관리 실태조사 보고서-고성-』.
고성군 · 동아대학교박물관, 2004,『문화유적분포지도-고성군-』.

2) 고성군 · 삼강문화재연구원, 2018,『고성 동외동 패총 복원정비를 위한 기본조사 보고서』, 269~272P.



1. 고성 동외동유적 전경(2018)



2. 새무늬청동기
의례에 사용된 도구로 앞면에 문양이 빼곡이 새겨진 것으로 중국 남조문화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물이다. 내부에는 새 42마리가 새겨져있다

1914년 일본인 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2차례 고적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패총의 존재가 처음 확인되었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원삼국시대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패총조사가 진행되었고,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차례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고고학적으로 적갈색연질토기에서 김해식토기[경질토기]로 토기의 시기변화과정을 알 수 있었고, 일부 토층상 주거지 등의 유구의 존재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다음 조사는 1974년 고성읍 천도교당의 신축부지였던 패총의 서남면(404-1번지)에서 패각층과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긴급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원삼국시대의 분묘유적과 야철지가 확인되었는데, 토광묘에서는 인골이 출토되어 30세 이상의 성인남성이 묻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철지에서는 철기 제련을 위한 송풍구가 확인됨에 따라 철을 다루고 생산하였던 유적으로 보이며, 최근의 복원정비를 위한 지표조사[2]에서도 일부 철재와 노벽이 확인됨에 따라 동외동유적은 가야시대에 철 생산 제작을 담당하였던 곳이었다.

주요유물은 광형동모(廣形銅矛), 청동제검손잡이(靑銅製劍柄), 한경편(漢鏡片), 인문도(印文陶) 등으로 일본 큐슈지방과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로 바다를 통한 소가야의 대외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1995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가야유적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고성 동외동유적이 선정되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가'지구는 구릉 정상부의 북쪽 절반(254-1번지)지역으로 4개의 의례수혈이 구릉의 가장자리를 따라 확인된다. 수혈 내부에서 의례도구인 새무늬청동기[鳥文靑銅器]가 최초로 출토되었다. 국내에서는 단 2점 밖에 없는 중요한 유물이다. '나'지구는 정상부 동쪽을 한 단 낮은 사면부(251번지)로 주거지가 중복되어 확인되는데, 중복이 심해 최상층에 노출된 14기만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동외동유적이 정상부에서 말단부까지 무덤, 의례공간, 주거지, 생활폐기장(패총) 등 구역분리가 정확히 이루진 유적으로 당시 생활상에 대해 알 수 있다.

고성 동외동유적은 고대 국가 성립 바로 전단계의 고성에 존재했던 정치체의 흔적으로 뒤에 이어지는 소가야의 성립에 바탕이 되는 유적이다. 현재 개발과 민가 및 개인 사유지로 인해 유적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신속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적으로까지 확대지정 해야 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고성 만림산토성

고성 만림산토성은 고성읍 대독리 만림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고성만에서 고성읍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다. 토성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부터 있었지만, 문화재조사는 분포 및 지표조사만 일부 행해지다가, 정식 발굴조사는 최근에 진행되었다.

'佛巖山在縣西二里 有土城古基 自甘峙山來'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고성현 산천조〉

만림산토성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에 처음 확인되는데, '불암산(佛巖山)'은 만림산으로 보이며, 실제로 산 아래 불암이라는 마을이 있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고성 만림산토성 원경(오른쪽구릉)
m150734 고성 송학동고분군에서 바라본 만림산토성과 고성만(19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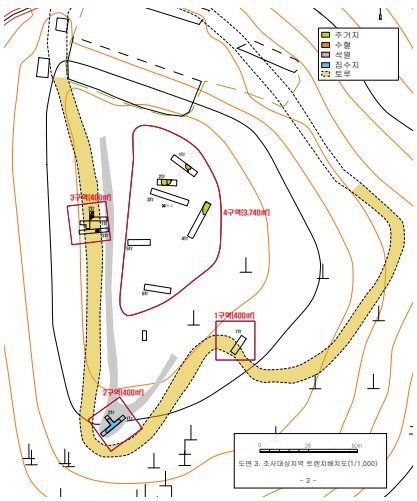


4. 고성 만림산토성 전경

일제강점기에도 토성에 대한 존재를 확인하였다.[3] 1915년 동경제국대학의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가 한일교섭과 관련된 고대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웅천(現 진해)을 경유해 고성지역을 조사하였는데, 하루에 진행된 조사였지만 남산고분군(現 송학동고분군)과 고성산성(現 만림산토성)과의 관계를 주목하여 조사하였다. 그는 토성과 고분군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고대 한반도 남부지역의 가야의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후 1918년 야츠이 세이이츠[谷井濟一]도 하루만에 송학동고분군, 기월리고분군, 삼산면 산성(만림산토성)을 답사하는데 그쳤다. 남아 있는 유리건판에서는 만림산에 올라가 거류산과 고성읍 일대, 수남리 일대를 찍은 것이 확인된다. 고분군과 토성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듬해인 1919년에 고성지역을 정밀고적조사 할 예정이었으나, 3·1운동으로 인한 반일감정과 1920년 일본 내 관동대지진 등으로 인한 내·외부 상황 악화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후 1984년 동아대학교박물관, 2004년 창원문화재연구소(現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해발 88m 만림산 8부 능선에 테뫼식으로 축조된 토성으로 양수장의 설치로 훼손된 북쪽 부분 제외하고는 기단석축, 문지, 집수지 등 삼국시대 소가야의 토성으로 보고되었다. 여러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유적의 정확한 성격규명을 위해 2019년 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4] 총 4개소의 부분 발굴을 시행하였다. 성벽은 1 · 3구역에서 주변의 흙을 4~5단계에 걸쳐 성토하여 구축하고 부분적으로 할석을 활용하여 토루를 조성하였는데, 삼국시대 토성축조기법에서 보이는 토제(土堤)와 토낭(土囊), 블록 등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 문지는 3곳에서 확인되었는데, 측벽구조로 된 돌무지가 확인되었다. 구릉 정상부에서는 4동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평면 원형 · 장방형의 구조로 길이는 4~7m 정도이다. 유물은 토축 성벽과 주거지 등에서 소량 출토되었는데, 연질토기(軟質土器)·타날문토기(打捺文土器) 등 기형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잔편들이지만 흙입자, 성형방법 등을 통해 원삼국시대 유물로 확인된다.

유적의 정확한 조성시기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처음 진행한 정식조사를 통해 삼국시대와는 축조기법이 다르고 내부 출토유물을 통해 원삼국시대의 토성으로 추정되고 국내에서는 처음 확인되었다. 만림산토성은 고성만에 접해 육지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유적으로 맞은편의 남산토성과 함께 소가야 도성의 주 방어성으로 대표적인 가야유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5. 만림산토성 조사도면


6. 만림산토성 성벽(3구역 3트렌치)

3) 고성박물관, 2017, 『가야의 해상관문, 고성 내산리 – 일제강점기의 고성–』, 18~36P.

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9, 『고성 만림산토성 시굴조사 약식 보고서』, 유구의 정확한 시기·규모 · 구조 등을 밝히기 위해 시굴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 고성읍 일대 전경

고성 송학동고분군 사적 제119호

고성읍 중심지에 홀로 우뚝 솟아 '독뫼산' 또는 '똥뫼산'이라 불리었고, 형태가 동산 같아 일부 주민들은 작은 산으로 인식하기도 하였으나 옛 가야의 지배자가 묻어 있는 신성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매년 가을 소가야축제를 시작하는 제사를 지내며 예를 갖추었다. 송학동고분군에 올라서면 고성읍이 한눈에 들어오며 지금은 건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지만 남쪽으로는 고성만이 북동쪽으로는 당항만이 보인다.

송학동고분군은 해발 30m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1호분을 중심으로 능선과 인근 평지에 고분군들이 산재한다. 중심 구릉에는 1~6·11·12호분이 조성되어 있고 동쪽으로 간격을 두고 7~10호분 줄지어 분포되어 있다. 송학동에서 북서쪽을 행정구역상 기월리라 하여 기월리 1 · 2호분(송학동 13 · 14호분)이 조성되어있는데 입지상 송학동고분군과 성격을 같이하며 모두 포함하여 총 14기가 사적 제119호로 지정되었다. 다른 지역의 가야고분군보다 밀집성은 떨어지나 송학리와 기월리 일대에 다수의 고분군이 확인된다.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 기록에서는 인근에 100여기의 고분군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후 개발과 민가들의 형성으로 인해 일부 파괴되어 지금과 같은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5)]

최초의 조사는 1914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송학동 1호분이 발굴되었다. 정식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아 남아 있는 복명서와 유리건판 등의 발굴자료를 통해 갑옷, 대도, 각종 토기류가 수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의 고성지역 고적조사 시 촬영한 유리건판자료상으로는 고성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고성읍에는 많은 기수의 고분은 확인되지는 않고, 현재의 고분 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8. 고성 송학동 1호분



9. 고성 송학동 1호분 발굴조사

이후 1915년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가 고성일대를 답사한 후 송학동고분군과 만림산토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검토하였고, 1918년 야츠이 세이이츠[谷井濟一]가 송학동, 기월리고분군과 만림산토성에 대한 답사 후, 송학동고분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 이듬해인 1919년 특별조사를 계획하였으나 일본의 내·외부상황의 악화로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송학동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가야유적정비계획의 일환으로 1999~2002년까지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조사 전 송학동 1호분의 외형이 일본의 전방후원분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발굴조사로 3기의 매장주체부의 각 봉분이 유실되면서 나타난 현상임이 밝혀졌다. 조사는 송학동고분군의 정비를 위한 고분군 분포현황, 기본적인 측량과 현상파악이 중심이었고 이 중 논란의 여지가 있고 대형분이 1호분의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송학동 1호분은 구조와 시기를 달리하는 3개의 매장주체부를 가지고 있어서 1A·1B·1C호분으로 명명되었다. 1A호분은 구릉 남쪽 정상부에 먼저 축조되고 북쪽 구릉 정상부에 1B호분, 마지막으로 양고분군 사이에 1C호분이 축조되었다. 1A호분은 중심의 1기의 수혈식석곽묘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소형 석곽 10기가 배치되어 있다. 1B호분은 1기의 중심 석실과 2기의 소형석곽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1B-1호는 연도와 묘도를 가진 횡혈식석실분으로 연도입구부에 대형의 문주석과 문지방석이 설치되어 있고, 석실 내부에는 붉은색으로 전면 칠해진 채색무덤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른 가야의 횡혈식석실묘와는 달리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고성의 지역적·정치적 특성이 지배층의 분묘유적에 반영된 자료이다. 고분군 내부에서는 다양한 가야유물들이 확인되었고, 재지계를 비롯한 신라·대가야·영산강·왜의 유물까지 출토됨으로써 해상왕국 소가야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삼국시대의 고성지역은 육로보다는 남해안을 이용한 수로(水路)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발달된 곳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바다를 기반으로 고대국가를 형성하여 교역의 중심으로 번창하였던 소가야는 정확한 멸망연도는 알 수 없으나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가야 멸망시기인 562년을 전후로 나라의 기능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성의 곳곳에 소가야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일부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보존·복원이 진행 된 곳이 있지만, 대부분 도시화로 인해 훼손되거나 방치하여, 원상 그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에 대한 성숙된 인식과 꾸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소가야의 문화보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가야유적 최신 발굴조사 현장 소개



1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원경

오동선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1.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원경

고분의 위치와 조사경위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 8-7, 14-1번지 일대로 서쪽은 장수군 번암면, 동북쪽으로는 경남 함양군과 경계를 이룬다. 고분은 남강 최상류 지대로 서쪽의 시리봉(777.7m)에서 평지 쪽으로 뻗어 내린 여러 갈래의 지맥 중 말단부에서 봉긋하게 솟아오른 능선의 정상부에 해당한다. 정상부에서는 아영분지의 넓은 평야지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과 관련하여 호남 동부 지역 가야고분의 성격 규명을 위해 2017년부터 이 일대 고분에 대한 분포 현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월산리고분군과 인접해 있고, 두락리고분군과도 불과 2㎞ 거리에 위치하지만 전혀 다른 입지를 보이는 청계리고분군을 주목하고, 고분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여 다른 고분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2. 2·3호 석곽 개석 상면 정리 후



3. 1호 석곽 개석 상면 정리 후

조사 전 상황과 봉분 외형의 특징

조사 전 봉분 위에는 소나무와 잡목이 무성했고, 봉분 서쪽은 삭평이 심해서 기반토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매장시설은 석곽으로 총 3기가 확인되었다. 3호 석곽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다. 능선의 길이 방향과 직교하게 동-서 장축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예비군 참호로 이용되면서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2·3호 석곽은 벽석을 공유하면서 'T'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1호 석곽은 지표상에 노출돼 있지는 않았고 평면 확인을 위한 제토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2호 석곽과 동일 장축이지만 3호 석곽과 달리 벽석을 공유하지는 않고 1.5m 가량 떨어져 있었다.

봉분은 평면 장타원형이고 규모는 성토부 기준 최대 길이 30m, 너비 20m 내외이다. 개석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봉분의 본래 높이 추정은 어렵다. 다만 성토 각도를 고려하며 현재 개석 높이에서 최대 1m 가량 더 성토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석열은 봉분 동쪽의 평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봉분 사면의 중간지점을 거의 일직선으로 지나고, 2호 석곽과는 최대 3m 폭을 유지하면서 정상부 쪽으로 휘어져 올라간다. 3호 석곽과는 동쪽 단벽 바깥쪽에서 사면을 돌아 올라가는데 기반암과 접하면서 끝난다. 동쪽과 남쪽 일부만 남아있어서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렵다. 다만 가운데 위치한 2호 석곽의 정중앙을 기점으로 동서·남북이 대칭이라고 가정하면 길이는 17m, 너비는 12m 내외로 추산할 수 있다.

오동선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4. 석곽의 배치(북→남)

석곽의 구조

2호 석곽은 봉분 중앙에 위치한다. 길이 5.4m, 너비 1.6m, 높이 1.3m로 다른 석곽보다 너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보강석도 많이 사용해서 석곽 최상면에 노출된 벽석의 범위가 넓다. 네 모서리는 맞물린 상태로 보아 북 단벽-서 장벽-남 단벽을 'ㄷ'자 상으로 한 번에 쌓고 동 장벽은 별도로 쌓아 남동과 북동 모서리에서 교차시켜 맞물리게 했다. 석곽 바닥의 중앙에는 너비 1.1m, 잔존 길이 2.4m 범위에 두께 5㎝, 너비 20㎝ 내외의 납작한 할석을 깔아 관대를 마련했다. 도굴은 남쪽 단벽을 뚫어내고 진행되었고, 석곽 내부는 북쪽 바닥과 양 측벽의 가장자리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교란되었다. 남측 바닥에서는 도굴되면서 깨진 토기편이 모여 있고, 북측의 관대석들 사이에서는 금동제의 화살통 장식과 모자도의 봉형금구로 추정되는 금공예품 편을 비롯하여 꺽쇠와 관못류가 수습되었다. 2호 석곽은 도굴되어 유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분의 중앙에 위치하고 금동 장식 화살통 편과 모자대도 편, 토기 편 중 수레바퀴 장식 토기로 보아 이 고분의 주 피장자가 안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3호 석곽은 2호 석곽 북 단벽에 접해 장축을 달리하여 위치한다. 길이 5.8m, 너비 0.7m, 높이 1.1m로 3개 석곽 중 가장 세장하고 높이가 낮다. 동측 단벽은 가장자리를 다듬은 판석 1매로 막았다. 남측 장벽과 만나는 지점은 이 판상석에 기대어있고, 북측 장벽과 접하는 지점은 그렇지 않다. 판석 바깥쪽에는 석재를 받쳐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성토되어 있다. 서쪽 단벽은 남측 장벽과는 맞물려 있고, 북측 장벽과는 이어져 있다. 이로 보아 3호 석곽은 묘광의 동쪽 단벽에 판상석을 세우고 동-북-서벽을 한 번에 쌓고, 남측 장벽을 따로 쌓아서 남서쪽은 맞물리게 했다. 내부는 완전히 교란된 상태로 동쪽 단벽 바로 아래에서 뚜껑 한 점이 확인되었다. 3호 석곽은 규모와 형태가 다른 석곽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주곽으로 보기는 어렵고 2호 석곽 피장자에 예속된 부장곽의 용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1호 석곽은 2호 석곽 남 단벽에서 1.5m 가량 떨어져 있다. 길이 5.7m, 너비 1.15m, 높이 1.65m로 다른 석곽보다 깊고 단벽이 세장하다. 북 단벽과 서 장벽은 한 번에 만들고, 동 장벽은 따로 만들어서 북동쪽 모서리에서 맞물리게 했다. 남쪽은 도굴로 훼손이 심해서 벽석들 간의 축조 관계 파악이 어렵다. 2호 석곽과 달리 동쪽 장벽 바깥 부분 보강석이 거의 없어서 벽석 최상단의 너비가 좁다. 깊이가 깊고 거의 한 줄로만 벽을 쌓아서 가운데 부분이 석곽 안쪽으로 볼록하게 내만해 있다. 개석 한쪽이 무너진 것도 벽석이 개석의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도굴의 피해가 다른 석곽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했다. 남쪽은 부장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도굴 과정에서 깨진 토기와 금속유물이 폐기되어 있다. 석곽 바닥 중앙에는 관받침용으로 쓰인 석재가 1m 간격으로 세줄 놓여있다. 석재 상면에는 꺽쇠가 가지런히 놓여있어서 목관의 길이는 2m 내외, 너비는 1m 내외임을 알 수 있다. 머리쪽으로 보이는 북쪽에서는 방추차를 비롯하여 철모 3점이 확인되었다. 관외 부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북쪽의 묘광 충전토 상부에서 1개체의 대형 호 1점이 수습되었다.



5. 2호 석곽 묘광의 서쪽 어깨선



6. 2호 석곽 동벽 축조와 성토

오동선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고분의 축조과정과 구조 특징

고분은 산 말단부에 솟아오른 봉오리의 정상부를 평탄화하고 'T'자 형의 주부곽을 구획하여 묘광을 `L'자 형으로 파낸 후 석곽을 만들었다. 석곽 동측은 성토와 동시에 축조한다. 석곽 벽석 축조 마무리 시점에 피복토를 한 겹 깔고 고분 사면 중간 부분에 석렬을 두른다. 마지막으로 개석을 올리고 최종 성토하여 고분을 완성한다. 고분 완성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석곽 1기를 추가로 매장하여 봉분의 외형이 더 기다란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아영분지 일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가장 인접한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 지산동과 합천 옥전고분군에서도 동일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합천 옥전고분군은 매장시설이 모두 지상에 위치하는 반면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모두 지하식이다. 아울러 합천 옥전고분군은 목곽이 꽤 오랜 기간 사용되는 반면, 지산동고분군은 73호분을 제외하면 모두 석곽이다. 매장시설의 규모와 배치에서도 차이가 있다. 옥전 고분군은 매장시설의 폭이 넓고 낮은 반면 지산동고분군은 세장하다.

남원 아영분지에는 합천 옥전과 고령 지산동의 고분 축조 전통이 모두 확인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반적인 양상으로 보면 두락리고분군은 고령 지산동을 지향하고, 월산리고분군은 M1호분을 제외하면 매장시설에서는 고령 지산동, 고분 축조 전통에서는 합천 옥전고분군을 따르고 있다. 청계리고분군은 입지와 매장시설의 구조 모두 다르지만 매장시설 축조와 성토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매장시설이 낮고 넓다는 점에서 합천 옥전고분군의 양상을 보인다. 반면 후대에 조성되는 1호 석곽은 고령 지산동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렇게 5세기 중반 이후 아영분지의 고분군에는 구조로만 보면 최소한 고령과 합천 두 지역의 고분 전통이 섞이면서 분화·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고분군의 축조순서를 밝히기 위해서는 유물의 교차 편년이 선행되어야하며 고령, 합천 이외의 아라가야, 소가야, 금관가야의 고분 축조기법과도 비교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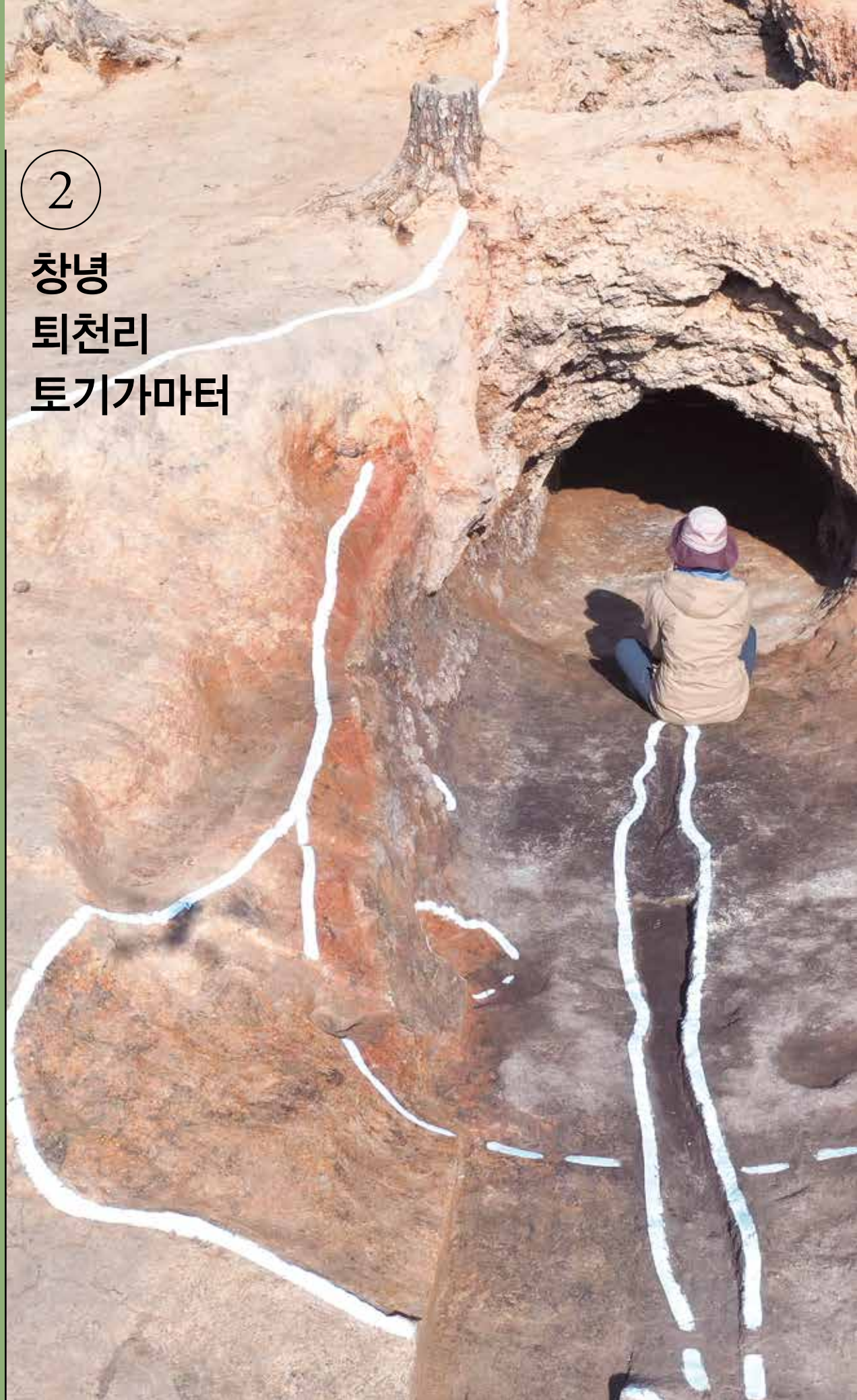


7. 1호 석곽 묘광의 북쪽 어깨선



8. 1호 석곽 유물 출토상황

현장 소개 가야유적 최신 발굴조사



② 창녕 퇴천리 토기가마터



퇴천리 토기가마 전경

김정호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개요

'창녕 퇴천리 토기가마터'는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산 78번지에 위치한 유적이다. 이곳은 1992년 국립진주박물관에 의해 최초로 보고[1]되었으며, 이후 2019년 창녕군과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2]를 통하여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조업이 이루어진 토기가마 1기를 비롯하여 토취장(土取場)·폐기장(廢棄場)·배수로(排水路) 등의 기능을 겸한 구덩이 등이 조사되었다.[3]

이 가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야토기 생산시설로 그 형태가 가장 완벽하게 남아 있는 동시에 보수로 인한 가마의 구조변화도 함께 알 수 있는 등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다채로운 고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 1992년 퇴천리 토기가마터 조사당시 토기가마의 모습 (창녕 여초리 토기가마터 Ⅰ, 국립진주박물관, 1992.)

1) 國立晋州博物館, 1992,『昌寧余草里토기가마터(Ⅰ)』.
2) 창녕군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9,『고대 창녕의 성곽과 토기가마터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수립 학술연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9. 6,「창녕 퇴천리 토기가마 유적 試掘調査 略式 報告書」.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9 12,「창녕 퇴천리 토기가마 유적 精密發掘調査 略式 報告書」.
3) 퇴천리 토기가마터는 중층(重層)으로 이루어진 복합유적으로 토기가마는 하층(下層)에서 조사되었으며, 상층(上層)에서는 7세기대 신라 고분(古墳) 및 조선시대 분묘(墳墓)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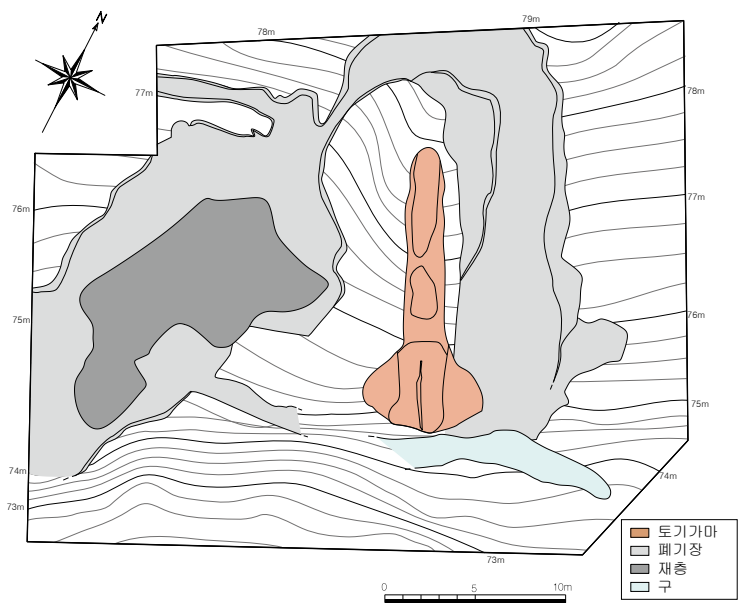
토기가마

퇴천리 토기가마는 등고선과 직교하게 축조된 지하식 오름가마[登窯]로 가마의 전체 잔존규모는 길이 15.7m, 너비 2.3m, 깊이 2.3m 정도이다.

가마는 평면 '一'자형으로 길게 조성되어졌는데, 위쪽부터 가마 내부의 연기가 배출되는 공간[煙道部], 기물을 놓고 굽는 공간[燒成部], 열을 가하던 공간[燃燒部], 그리고 조업이후 생성된 재를 끌어낸 공간[灰丘部]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구조가 매우 양호하게 잔존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도부(煙道部)는 계단상으로 단시설을 두고 점차 좁아지는 벽면을 통해 연기가 가마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조성하였으며, 소성부(燒成部)는 점차 경사도가 높아지면서 뒤편은 약 31°로 급경사를 이룬다. 반면, 연소부(燃燒部)는 중앙부가 완만한 'U'자상을 이루면서 거의 편평한 경사도를 보인다. 회구부(灰丘部)는 연소부 앞쪽을 평면 '八 '자상으로 벌어지게 굴착하였는데, 바닥에는 배수구(排水溝)와 함께 양 벽면에는 약 90cm 간격을 둔 직경 25cm 크기의 기둥자리 4개가 대칭적으로 조사되었다.

기둥자리를 통해 볼 때, 작업 시 아궁이(火口) 앞쪽에 비와 눈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부 구조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물의 흔적은 현재까지 토기가마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자료로서 당시 구체적인 작업환경을 엿 볼 수 있다.



2. 창녕 퇴천리 토기가마터 유구배치도

김정호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3. 토기가마 내부

4. 천정부 내 짚흔

5. 천정부 내 손자국

한편, 회구부의 시작지점 좌측벽면에는 덧대어진 아궁이의 벽체(壁體) 보수 흔적이 관찰되고 회구부 바닥은 높은 열로 인해 단단하게 굳어진 형상이 확인되고 있어, 회구부 사용 이전에 이곳에서 불을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처음 토기가마를 만들고 사용하였을 때에는 현재 확인되는 회구부가 연소부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지속적으로 보수하면서 연소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다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처음 축조될 당시에는 토기가마의 길이(연도부~연소부까지)가 14.8m 정도에 이르는 매우 큰 규모로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또한, 퇴천리 토기가마는 연소부에서 소성부에 걸쳐 천정부가 매우 양호하게 남아있는데, 천정 내면에는 보수하면서 흙과 함께 첨가한 짚의 흔적과 함께 당시 보수한 사람들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10여 차례 이상 보수하면서 형성된 천정구조(두께 약 130cm)도 국내 토기가마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타 유적 토기가마에서도 천정부가 조사된 사례가 있으나 그 양상이 단편적이거나 두께도 20cm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퇴천리 토기가마가 다른 토기가마들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토기가마에서 출토된 유물은 큰항아리[大壺], 짧은목항아리[短頸壺], 그릇받침[器臺], 뚜껑[蓋], 굽다리접시[高杯] 등이 있는데, 주 생산품은 큰항아리이다.



6. 토기가마 내 유물 출토상태

김정호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7. 퇴천리 토기가마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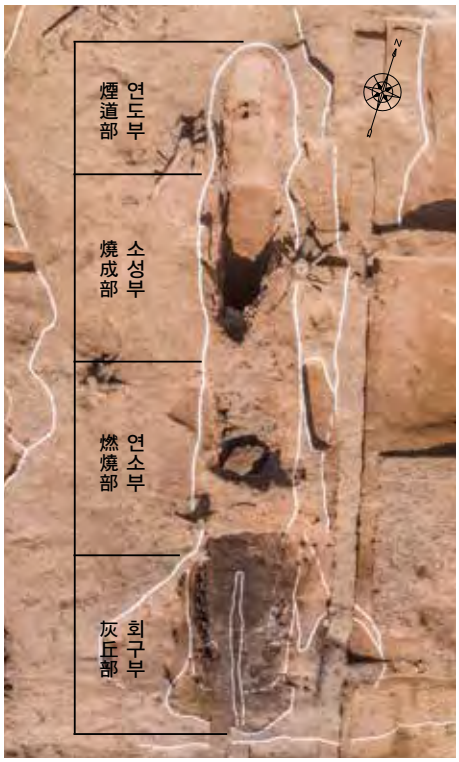
의의

현재까지 퇴천리 토기가마터를 비롯하여 창녕지역 내 삼국시대 토기가마터로 추정되는 유적은 여초리 토기가마터 가·나구간, 외부리 바깥가마실토기가마터, 외부리 평동토기가마터, 퇴천리 거울내토기가마터 등 총 6개 유적이며, 이와 함께 계성리유적에서 토기가마 1기가 조사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계성리유적 내 토기가마를 제외하면 모두 대규모 토기생산시설로 추정되며 용석천을 따라 반경 4km 이내에 집중 분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일대가 비화가야의 토기 생산지의 중심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퇴천리 토기가마터 발굴을 통해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퇴천리 토기가마는 이전에 조사되지 않았던 가마의 천정 및 벽면의 실제 모습과 상부시설물의 흔적, 벽면 등에서 보이는 가야인들의 보수 방법, 가마의 지속적인 사용에 따른 구조적 변화양상 등 삼국시대 토기가마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매우 희귀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가야지역 토기가마 구조의 연구 및 복원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8. 창녕지역 비화가야 토기가마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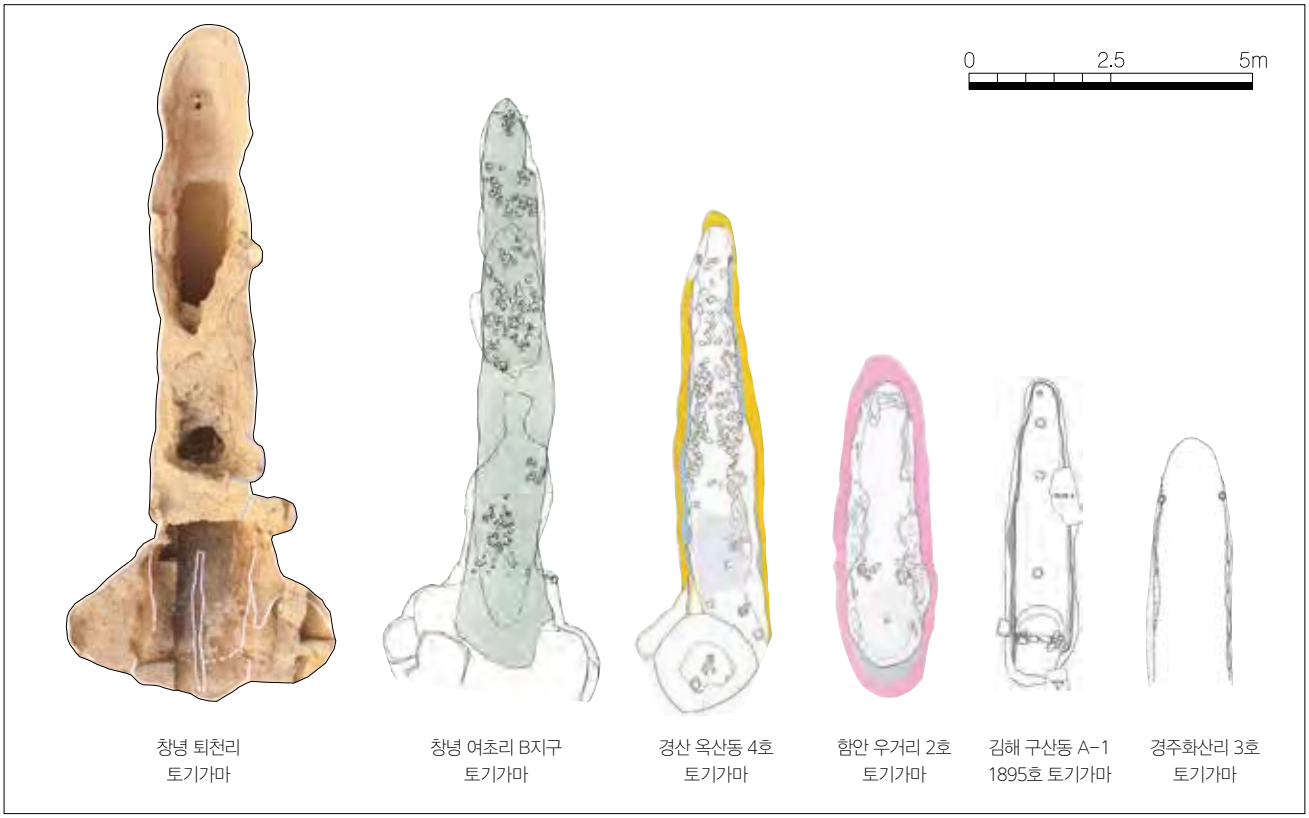


9. 퇴천리 토기가마

규모면에서도 처음 축조될 당시를 기준으로 삼국시대 토기가마 중 최대 규모이다. 이는 비화가야인의 뛰어난 가마축조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가마는 큰항아리[大壺]를 주로 생산한 가마로 큰항아리는 제작공정상 여러 부위로 나누어 제작한 후 접합하는 등 성형과 소성에 매우 까다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기종으로 당시 창녕지역 비화가야인들이 가진 토기 제작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퇴천리 토기가마터는 추후 가야 토기가마의 구조와 조업방법, 구조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근한 용석천 주변 가마들과의 비교를 통해 비화가야시기 창녕지역 토기생산과 공급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비화가야인들의 수준 높은 토기 제작과 생산기술을 보여주는 조사사례라고 할 수 있다.



10. 삼국시대 토기가마 규모 비교

심재용 |김해시청

GAYA EXCAVATED RELICS



가야유적 출토 유물 소개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장식마구

대성동고분군

국가사적 제343호인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금관가야 왕들이 잠든 곳으로 금관가야의 왕급 무덤들은 구릉의 선부에 입지하고, 중소형 무덤들은 구릉 사면과 주변 평지에 조성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성동고분군의 발굴조사는 경성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90년부터 1991년까지 1~3차례, 2001년에 4번째 실시되었고,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의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9차례 조사가 시행되었다[1](사진1).

경성대학교박물관의 조사를 통해 구릉의 주능선에 3세기부터 5세기 초까지 최고지배층의 대형덧널무덤이 조성되고, 구릉 사면과 주변 평지에 하위계층묘와 2세기 초 널무덤이 위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도 순장 등의 습속과 동복(銅鍑)·금동관(金銅冠) 등의 북방계유물, 파형동기(巴形銅器), 벽옥제석촉(碧玉製石鏃)등 왜(倭)계유물들이 철정(鐵鋌)·철제갑주(鐵製甲冑)·철제마구류(鐵製馬具)와 함께 확인되는 등 금관가야의 성립과 대외교섭 실태를 규명해 주는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4세기대 중국과 북방에서 제작한 금동제대금구[金銅製帶金具]와 금동·청동제 장식마구, 장식대도편(裝飾大刀片), 청동그릇과 칠기가 대형의 덧널무덤에서 처음으로 출토하였고, 서역계 유리기파편도 수습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무덤에서 일본유물인 파형동기 13점이 출토되는 등 금관가야와 중원·북방·왜의 교섭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다량으로 확보되었다. 또한 새로운 형식의 순장무덤이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이 새로운 자료들은 국내에서 대성동고분군에서만 확인되는 것들로, 당시 금관가야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1.
대성동고분군 2012년조사 원경

2.
대성동 91호 전경

3.
대성동 91호 장식마구 출토광경

1) 경성대학교박물관의 조사구간 중 1~3호, 13·18·29호와 4차 구간에 대한 정식보고서만 간행되어 보고가 안 된 무덤들이 많지만, 대성동고분박물관 조사구간은 보고서가 모두 완간되어 대성동고분군에 대해 검토가 가능케 되었다.

심재용 |김해시청

대성동고분군 91호 출토 장식마구

말갖춤[마구, 馬具]에는 재갈[轡]과 발걸이[鐙子], 안장(鞍裝), 말갑옷과 투구, 말 장식구인 말얼굴가리개[마면, 馬面], 말띠꾸미개[운주, 雲珠], 말띠드리개[행엽, 杏葉], 말방울[마령, 馬鈴]이 있다. 장식마구는 금·금동·청동·은으로 만들어 말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의장용이나 제사용으로 만든 마구로 정의할 수 있다.

2012년 대성동 91호에서 금동과 청동으로 만든 마면, 운주, 마령이 출토되었는데, 이런 종류의 장식마구들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된 것이다(사진2). 이 장식마구들은 북방유목민족 중 하나인 모용선비가 중국에 세운 나라인 전연(前燕)의 영토에서 출토된 것과 형태적으로 같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 마구들의 시기는 4세기 2/4분기이며, 한반도 중남부에서 출토된 기승용 장식마구들 중 가장 빠른 시기의 것에 해당한다. 2013년 4세기 3/4분기의 대성동 70호 주곽에서도 금동제 용문양 안장 부속구가 출토되었다. 이 중 대성동 91호 장식마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성동 91호의 장식마구들 중 운주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는데, 운주는 재갈과 안장 등을 말에 장착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죽 등으로 된 끈들을 서로 묶어 연결하는 말갖춤이다. 대성동 91호에서 출토된 운주는 원형, 삼각형, 말발굽형, 사다리꼴, 방원형(方圓形), 새발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출토되었다.(사진4)



4

방원형 운주는 청동제 2점이고, 이를 모방하여 만든 철제품 5점도 같이 출토되었다. 그 외의 운주들은 모두 금동제품들이다.[2] 말발굽형은 중국 조양시 삼합성묘(三合城墓)와 북표 라마동 고묘에서 출토되었고, 방원형은 조양시 원대자벽화묘에서도 출토되었다.

91호 장식마구들 중 주목되는 것은 용문양이 투조(透彫)[3]된 운주와 안장 부속구(座金具)이다. 금동제 용문양 운주는 다른 방향의 끈을 연결시키기 위한 다리 4개가 있고, 원형의 몸통에는 입을 벌린 용머리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 용비늘이 표현된 몸체가 둘러져 있으며, 용머리에 뿔·눈·귀·입·이빨이 잘 표현되어 있다. 전체길이는 6.0㎝이다. 다리가 4개인 금동 용문양 운주는 중국 조양시 라마동유적 I M21호와 집안시 태왕릉에서도 출토되었는데, 대성동 91호분의 단면의 형태가 약간 볼록한 형태라면, 라마동과 태왕릉 출토품은 공을 절반 자른 형태[반구형, 半球型]이라는 점이 다르다.(사진5)



5

2) 대성동 91호와 70호에서 출토된 금동제장식마구들은 청동의 표면을 도금한 것들이다.

3) 투조透彫(재료의 면을 도려내어 도안을 나타내는 기법)



6



7



8

금동제 용문양 안장 부속구는 단면의 형태가 반구형이고, 직경은 4.5㎝이다. 중앙에 길이 1㎝인 정사각형의 구멍이 있으며, 이 구멍 외부에 정사각형의 테두리가 있다. 이 중앙의 정사각형 테두리와 부속구 바깥 테두리 사이에 용 2마리가 투조되었다. 용은 대칭되게 전면 중앙부터 머리·발→몸체·꼬리 순으로 위치하며, 용두에 눈·귀·입·뿔을 표현하고, 몸통과 꼬리의 비늘을 모조로 잘 표현하였다. 조양시 북표 창량교묘(倉粮窖墓)에서도 이러한 마구가 출토되었다. 이 마구는 입면의 형태로 보면 운주에 가깝지만, 중앙의 정사각형 구멍과 북표 창량교묘 출토품의 출토 위치를 볼 때 말안장의 나무자리에 사용되는 부속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것이 대성동 70호에서도 출토되었는데, 크기와 문양 등이 91호와 거의 같다. (사진6)

고대의 용문양은 황제나 왕의 권력과 통치사상을 나타내는 동시에 천하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 대한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기물에 사용되는 문양이므로, 용은 황제나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대성동 91·70호 외에도 대성동 88호 출토 금동제대금구(金銅製帶金具)에 용문양이 투조되어 있다.(사진7) 이 세 무덤의 규모는 금관가야에서 조사된 무덤들 중 초대형급에 들어가므로, 이 세 무덤은 왕 내지 왕에 버금가는 자의 무덤임을 알 수 있다.

4.
대성동 91호 운주

5.
대성동 91호 용문양 운주

6.
대성동 91호 용문양 안장부속구

7.
대성동 88호 용문양 허리띠장식

8.
대성동 93호 마주

9



금동제 삿갓모양 마령 5점, 청동제 공모양 마령 4점이 출토되었다. 마령은 주로 말의 가슴 쪽에 돌린 끈인 가슴걸이에 매다는데, 삿갓모양 마령은 말의 엉덩이에 돌린 끈인 후걸이에 매달아 장식한 운주로 파악하기도 한다. 삿갓모양 마령은 삿갓모양의 부속구와 방울로 구성되는데, 91호 삿갓모양 마령의 방울의 단면형태는 사다리꼴을 띤다. 이러한 삿갓모양 마령은 대성동 93호에서 1점이 출토하였다.(사진9)

말의 정수리를 장식한 금동제 마면은 평면형태가 원형이고 직경이 7.3~7.7㎝의 원형이다. 원판의 가운데에 철제고리가 끼워져 있어 가죽이나 끈에 고정할 수 있다. (사진10)

대성동 91호 장식마구들은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물들이 중국 전연권역에서 다량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식마구들이 대성동고분군을 제외한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는 출토되지 않으므로, 가야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중국 전연과의 교섭을 통해 직접 들여온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10





11



12

9.
대성동 91호 마령

10.
대성동 91호 마면

11.
대성동 1호 행엽

12.
대성동 1호 운주

대성동고분군 1호 출토 장식마구

5세기 1/4분기의 대성동1호분에서 금장(金裝)이 된 행엽과 운주, 금동제 내연금구(內緣金具)가 출토되었다.(사진11)

금장행엽은 철제의 지판 위에 원형금박을 올리고 가운데가 원형으로 뚫린 상판을 얹고 바깥 가장자리에 은장(銀裝)한 철제 못 6개를 박았으며, 금동제 내연금구에는 금구를 고정하기 위해 타원형의 머리가 넓은 못[병, 鉼]을 사용하였다. 특히 내연금구는 집안시 고구려 칠성산 96호 안장과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한 점에서 대성동 1호 장식마구는 고구려의 제작기술을 받아들여 금관가야에서 제작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대성동고분군 출토 4세기대의 장식마구는 중국과 북방에서 제작한 것을 직접 들여온 것이고, 5세기 초의 것은 금관가야에서 직접 만들어져 왕 내지 그에 버금가는 자의 무덤에 부장되었다. 왕급무덤에 금동제 관이나 금동제대금구, 장식대도, 장식마구, 서역계유리용기 등을 부장하는 습속이 금관가야 왕들의 묘역인 대성동고분군에서 신라·백제보다 먼저 등장한다. 이는 중국·북방-한반도-일본 간 교섭에 금관가야가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동아시아교역의 가교! 대성동고분군』, 김해시.
심재용, 2019, 『금관가야 고분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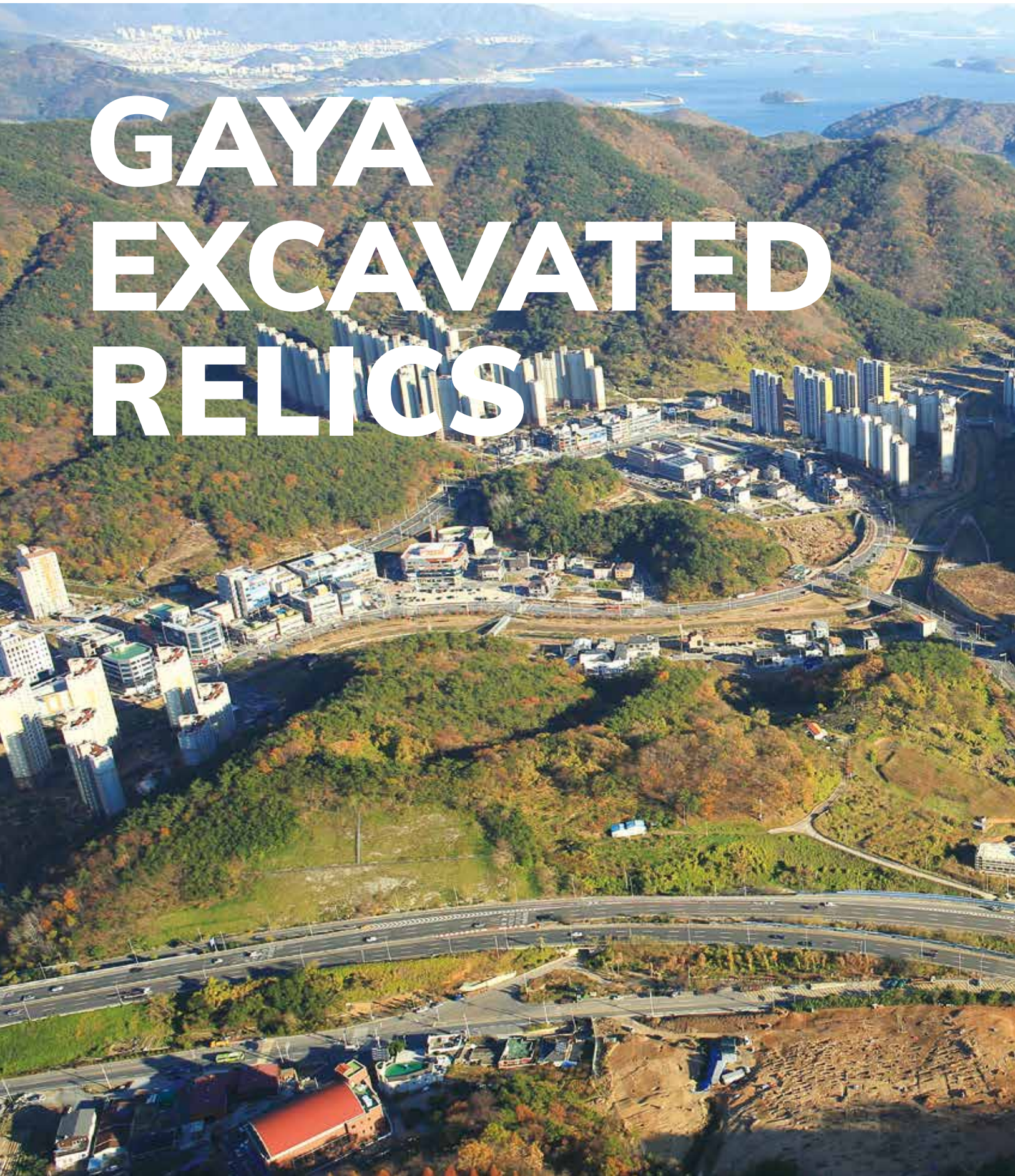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대성동고분군』 Ⅰ.
2010, 『김해대성동고분군』Ⅳ.
대성동고분박물관, 2011, 『김해 대성동고분군-68호분~72호분』.
2015a, 『김해 대성동고분군-85호분~91호분』.
2015b, 『김해 대성동고분군-70호분 주곽』95호분.
2016, 『김해 대성동고분군-92호분~94호분』지석묘.

학술논문

심재용, 2013, 「중국계유물로 본 금관가야와 중국 동북지방」,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남부의 교류』, 제2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심재용, 2016, 「금관가야의 외래계 위세품 수용과 의미」, 『영남고고학』 74, 영남고고학회.

황철주 |삼한문화재연구원

GAYA EXCAVATED RELICS





가야유적 출토 유물 소개

창원 현동유적의 배모양토기

창원 현동 고분군에서 바라본 덕동만

황철주 | 삼한문화재연구원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의 찬가

대한해협을 건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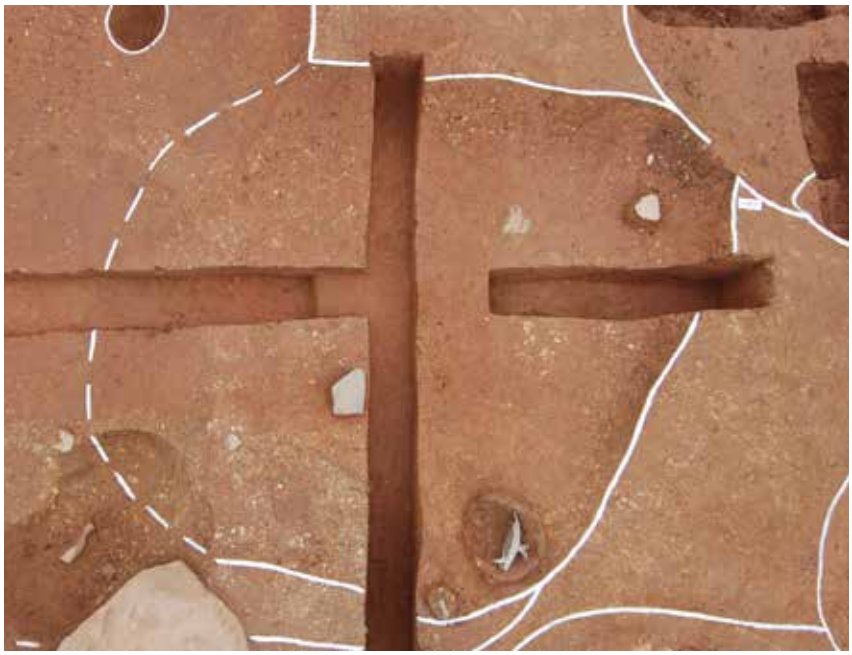
1. 창원 현동 고분군에서 바라본 덕동만

화창한 날씨, 지금의 덕동만 안쪽에 위치했던 항구 마을에는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 인파 속에는 저 멀리 바다를 건너온 왜(倭)인들도 섞여 있다. 곳곳에서는 철을 때리는 소리,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며 활기를 띤다. 마을에 오래 거주했던 노인들은 불과 수 년 전, 조용하고 가난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격세지감을 토로한다. 물론 불평보다는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의 찬가에 가까울 것이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교역선이 어느덧 출항의 신호를 보낸다. 선박 안에는 철 소재들을 비롯한 아라가야의 특산물이 담긴 토기들이 가득 실려 있다. 배는 노를 저어 근해로 나가 곧 순풍을 받고 대한해협을 건너 갈 것이다. 그리고 왜와의 교역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와 유형무형의 가치를 이곳으로 가져다 줄 것이다. 항구에 나온 사람들은 각각의 희망을, 욕망을,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담아 이 교역선을 배웅한다. 선박은 좁은 만을 지나 점차 넓어지는 남해 바다로 미끄러져 나간다.

5세기 전반, 이 일대에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창원(마산) 현동 일대에서 발굴조사된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것이다. 4세기대 까지만 해도 창원 현동 일대는 북쪽 아라가야 세력권의 변방에 해당되었으며, 인근 창원 분지 일대의 집단보다 훨씬 더 약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4세기 말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아라가야의 최고 요충지가 되면서 급성장하게 된다. 그 중심에는 가야의 철을 나르는 '배'가 있었다.



베일을 벗은
창원 현동유적



2. 창원 현동유적II 수혈유구 106호 전경



3. 마산 현동유적II 수혈유구 106호
배모양토기 출토 전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자리한 봉황산(해발 389m) 남동쪽 능선 사면과 그 건너편의 구릉 일대에는 옛 무덤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일찍부터 도굴의 표적이 되어 왔었다. 이 일대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는 1989년 창원대학교 박물관(마산 현동유적)을 시작으로 2009~2010년 동서문물연구원(마산 현동유적 Ⅰ·Ⅱ), 2017~2019년 삼한문화재연구원(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에 의해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발굴조사는 봉황산 남동쪽 능선 사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맞은편 4개의 구릉 사면에 대해서도 구역을 달리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동안의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창원 현동 일대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마을과 무덤이 들어섰던 곳이다. 특히, 봉황산 남동쪽 능선 사면에서는 800기가 넘는 4~5세기 가야 덧널무덤과 50기가 넘는 5~7세기 가야와 통일신라시대의 돌덧널무덤과 돌방무덤이 조사되었다. 유구의 밀집도와 배치상태, 후대 경지 정리 등에 의해서 파괴된 지점, 그리고 아직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 등을 종합해서 검토했을 때, 아마도 이곳에는 약 1,000여기에 가까운 대규모 묘역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맞은편 구역에서는 38기의 돌덧널·돌방무덤과 더불어 345기의 수혈, 제철유구, 폐기장, 고상식건물지 등 삼국시대 제철 마을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관찰된다. 첫째, 유적 인근까지 바다가 들어와 (고)덕동만을 형성했었다는 점이다. 현재 바다는 유적에서 직선거리로 3㎞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좁고 긴 통로를 따라 이동해야 한다. 유적 주변의 야트막한 산기슭들은 인간의 활동 영역을 마련해 주었지만, 결코 교통의 편리성과 드넓은 경작지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곳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외부와 연결시켜주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은 이곳이 개방적인 환경이 아님을 나타내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 당시에 유적의 정상부에 올라 남쪽 바다를 바라보았다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 펼쳐졌을 것이다. 남해의 거친 파도가 점차

황철주 |삼한문화재연구원



4. 마산 현동유적Ⅱ(동서) 출토 배모양토기

잔잔한 물결로 변하여 유적 바로 앞까지 들어오는 (고)덕동만을 형성하였으며, 현재의 좁고 긴 통로는 오히려 선박이 안정적으로 드나들며 정박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동쪽의 우산천을 따라 북쪽의 쌀재고개를 넘으면 함안분지, 즉 아라가야의 도읍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동 지역은 아라가야의 입장에서 해양 진출을 통해 왜와 교역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

둘째, 창원 현동 집단은 4세기 말~5세기 초에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며, 5세기 전반동안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점이다. 이 일대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환호취락과 원삼국시대 패총은 인근의 창원분지와 같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꾸준히 살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4세기 대까지 주변 세력들에 비해 출토된 유물의 수가 적고, 무덤의 크기 또한 작았다. 심지어 앞 시기의 패총 규모 역시 작다. 비록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원삼국시대 집단이 4세기대 집단과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했었다는 공통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4세기 말이 되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 무덤의 크기가 커지고 시상석이 깔리는 등 무덤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당시의 부와 권력을 나타내는 다량의 철기와 철제 무구, 제철 관련 도구들이 부장되는 등 수장급의 무덤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다. 봉황산 남동쪽 능선사면은 대규모 고분군으로써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게 되며, 이곳을 배후로 삼은 건너편 구릉 남동쪽 사면에는 제철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이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반세기만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배모양토기가 고분군과 마을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아라가야의
배모양토기



5.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전경

창원 현동유적에서 배모양토기가 출토되기 이전, 이것과 유사한 배모양토기는 출토지 불명으로 리움과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이 전시품들은 굽다리의 특징으로 보아 4세기 말 아라가야의 토기로 추정되었으나, 이 배가 정박해 있었던 시설을 확인할 수 없어 미상으로 남아있었다. 배가 영혼을 저승의 강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더라도 내륙에 위치한 함안지역에서는 이 배를 띄울만한 곳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아라가야의 교역항으로서 유력한 후보지는 현동 일대 보다는 서쪽의 진동만 일대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발굴조사를 통해서는 청동기시대 유적들이 주로 확인되었을 뿐이었고, 이 사실에 연구자들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러는 와중에 마산 현동유적Ⅱ '나'구역 수혈유구 106호에서 파손이 심한 배모양토기 1점이 출토되었고, 마침내 거제-마산 3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덧널무덤 387호에서 완전한 형태의 배모양토기 1점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유구에서 출토된 배모양토기들과 미술관 전시품들은 각각의 개성이 뚜렷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준구조선[1]으로써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해 등지에서 출토된 다른 가야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시 인근, 일본, 심지어 최근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배모양토기와도 확연히 구분되는 형태이다.

창원 현동 덧널무덤 387호에서 출토된 배모양토기는 길이 29.2cm, 높이 18.3cm로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벽이 얇아 가볍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배의 바닥은 가로로 가늘고 길며, 단면 역삼각형상인 첨저선(尖底船)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첨저선은 평저선(平底船)에 비해 파도에 잘 견디고 속도를 올리는데 유리하여 대양을 항해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뱃머리[이물비우]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바깥쪽으로 길게 뻗었고, 끝부분은 주구 모양으로 처

1) 준구조선(準構造船)이란 통나무 선체에 판재를 덧붙여 만든 배로, 통나무배에서 판재와 각목 등으로만 만들어진 구조선(構造船))으로 발전하는 중간 단계의 선박을 말한다. A.D.4~5C대 배모양토기들은 이러한 통나무배와 준구조선으로 구분되며, 구조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황철주 |삼한문화재연구원



6. 덧널무덤 387호 전경

리하였다. 뱃꼬리[고물비우]는 급격하게 꺾여 올라가지만, 바깥쪽에 마치 소뿔모양 손잡이와 같은 돌출부가 붙어 있어 길게 연장된 듯한 모습을 보인다. 배 안은 비어있고, 뱃머리 쪽으로 통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액체류를 담아 따르는 주구형토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아마도 상징성을 띤 의례용 토기였을 것이다.

좌·우측 뱃전에는 판재[현판]를 길게 덧붙였는데, 뱃꼬리와 뱃머리 쪽에 다다라서는 급격하게 세워져 있다. 뱃머리 쪽은 끝에서 조금 안쪽으로 넓은 판재 1개를 횡으로 가로질러 설치[이물비우]하였다. 뱃꼬리에는 뱃머리 쪽 판재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판재 1개[고물비우] 위로 폭이 좁은 판재 2개를 횡으로 연달아 가로질러 설치하였다. 이 넓은 판재[비우]들이 외양의 거친 파도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어 배의 안전을 지켜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선체 내부에는 사람 또는 짐을 두기 위한 시설들이 확인된다. 먼저 뱃머리 쪽에서는 판재[이물비우] 아래쪽에 마치 뱃마루[갑판]와 같은 작은 판자가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뱃꼬리 쪽에서는 칸막이[격벽]가 횡으로 가로질러 있다. 뱃마루와 칸막이 아래쪽은 뚫려 있어 서로 통하게 하였는데, 이 형태가 당시 배의 구조인지, 아니면 주구형토기로써의 기능적 선택이었는지 알 수 없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원거리 항해에 필수적인 장치인 돛이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 시기의 일본 배모양토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돛을 제외한 배의 구조가 거친 파도를 효과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 배모양토기가 상징성을 지닌 주구용토기에 가깝다는 점, 4세기 이전부터 가야와 왜가 철을 매개로 한 해상 교역이 활발했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덧널무덤 387호 출토품은 돛이 생략된 당시의 외항선을 축약하여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배 구조의 복원 외에도, 이 배모양토기는 침선 문양을 아름답게 장식한 뛰어난 예술품이기도 하다. 먼저 뱃머리에는 사격자문과 삼각집선문, 뱃꼬리 쪽 돌출부에는 삼각집선문이 새겨져 있다.



7. 덧널무덤 387호 배모양토기 출토 전경

8.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배모양토기



뱃전에는 오른쪽에 사격자문, 좌측에 삼각집선문을 새겨 넣어 멋스러움을 더했다. 뱃머리와 뱃꼬리 판재에는 측면에 집선문과 삼각집선문을 새겼고. 정면에 2개의 횡침선 안에 능형집선문이 새겨진 문양 2개를 위 아래로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뱃머리 쪽 판재의 끝부분에는 2개의 고사리모양 돌출부을 장식하였고, 뱃꼬리 쪽 상단의 판재 2개에는 사격자문을 동일하게 새겼다. 뱃꼬리 쪽 격벽에는 삼각형 모양의 집선문이 새겨져 있다.

수혈유구 106호에서 출토된 배모양토기는 상부, 특히 뱃머리 쪽 판재[이물비우]가 크게 파손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배의 모양과 문양 등이 덧널무덤 387호 출토품과 흡사하다. 다만, 이 토기는 3개의 톱니바퀴 모양 노걸이가 뱃전에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덧널무덤 387호 출토품뿐만 아니라 형태가 비슷한 리움 소장품과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품에서도 보이지 않는 장치이다.

황철주 |삼한문화재연구원

노걸이는 아라가야의 배모양토기인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품(두류문화연구원)을 비롯해서 달성 평촌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김해 진영 여래리유적 덧널무덤 24호(한국문화재보호재단) 출토품 등과 같이 주로 상부 구조가 단순하거나 작은 평저선, 통나무 배 등을 표현한 토기에서 확인된다. 이 토기들은 낙동강과 같은 큰 강 주변의 내륙지역에서 출토되었으므로, 강을 따라 움직이는 내항선을 본 뜬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수혈유구 106호 출토품에서 확인된 노걸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무덤과 마을이라는 출토 위치가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다만, 당시의 외항선이 가까운 바다에서 노를 젓고, 먼 바다에서 돛을 펼쳤지만, 의례용 토기로 본뜨면서 축약된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9. 목곽묘 387호에서 출토된 배모양토기 왼쪽

10. 목곽묘 387호에서 출토된 배모양토기
길이 29.2cm, 높이 18.3cm





11. 목곽묘 387호에서 출토된 배모양토기 뱃꼬리 세부

창원 현동 집단의 흥망성쇠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에 이르는 창원 현동 집단의 성장 배경에는 금관가야의 몰락, 가야산 철과 신진문물에 대한 왜의 욕망, 그리고 아라가야의 해양 진출이 있었다. 5세기 전반, 일본 나라현 일대에서는 수장층의 무덤인 대형 전방후원분에서 다량의 아라가야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아라가야 사람들이 살고 묻힌 유적들과 더불어 현지에서 초기 스에키 제작에 참여한 아라가야 공인들의 흔적 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자료들은 이 시기에 아라가야와 왜의 교역·교섭이 활발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5세기 후반, 한반도의 정치적 변동과 아라가야의 세력 약화와 맞물려 창원 현동 집단의 세력 역시 점차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창원 현동 앞바다에서 철을 가득 실은 배는 더 이상 대한해협을 건너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일까? 아라가야의 아름다운 배모양토기는 그들의 옛 영광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천수, 2010, 『가야토기 가야의 역사와 문화』, 진인진.

보고서
창원대학교박물관, 1990, 『마산 현동유적』.
동서문물연구원, 2012, 『마산 현동유적 Ⅰ』.
동서문물연구원, 2012, 『마산 현동유적 Ⅱ』.
삼한문화재연구원, 2019,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결과보고서(약)』.

학술논문
이정규, 2014, 「고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배모양 토기」, 『동남아시아 해양문화유산과 해상실크로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하승철, 2018, 「유물을 통해 본 아라가야와 왜의 교섭」, 『중앙고고연구』25.
황철주, 2018, 「마산 현동유적 발굴조사 성과」, 『2018 가야문화유산 최신조사성과』, 국립나주·가야문화재연구소 학술대회.
鈴木広樹, 박경수, 2019, 「고대 한국과 일본의 배모양토기와 해상교류」, 제4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윤천수, 2019, 『발굴조사 성과로 본 창원 현동고분군 조영집단의 성격』, 창원시/창원대 경남학연구센터 가야사 학술심포지엄.
이정근, 2019, 「가야의 상형 용기」, 『가야, 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지들』, 국립중앙박물관.

합천박물관



합천박물관 외부전경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황강옥전로 1558 개관일 : 2004.12.9.

시설안내

고고관 1층: 다라문화실, 어린이 체험실, 휴게실

고고관 2층: 다라역사실, 기획전시실

역사관: 합천역사실, 대강당

야외: 옥전고분군, 삼가고분(M2호분), 대지리사지 석탑

관람시간

하절기 오전09:00 ~ 오후06:00(입장마감 17시)

동절기(11월~2월) 오전09:00 ~ 오후05:00(입장마감 16시)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연혁

2004 – 합천박물관 준공

2004 – 합천박물관 개관

2012 – 합천박물관 역사관 개관

상설전시실과 야외전시 모습







사진제공 : 합천박물관

합천박물관은 제2차 가야문화권 정비계획에 따라 2004년 12월 9일 개관하였다. 가야의 일원인 다라국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합천의 역사와 전통문화도 함께 살필 수 있다.

전시실은 다라문화실, 다라역사실, 합천역사실, 기획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고고관 1층에 마련된 다라문화실에는 다라국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다라국 사람들의 생활상을 디오라마로 표현해놓은 있는 중앙홀을 지나 다라문화실로 들어갈 수 있다. 신라와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금동제 관과 금동관모, 로만글라스를 비롯하여, 의기유물 유물인 미늘쇠, 금속유물인 쇠창, 화살통과 화살촉, 갑옷, 말갖춤, 장신구인 금제귀걸이와 유리 목걸이, 화려하게 장식된 용봉문양고리자루큰칼을 전시하였다. 고고관 2층에 마련된 다라역사실은 다라국의 유물을 통하여 역사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옥전고분군에서 발굴된 다양한 형태의 고분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전시하고, 토기를 시기별로 전시하였다. 전시실 중앙에는 다라국 최전성기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옥전M3호분을 실물 크기로 재현하여 무덤 내부의 구조와 각종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리자루큰칼을 전시하여 다라국의 수준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관에 마련된 합천역사실은 합천의 전 시대 역사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민속유물과 대야성전투 영상, 고려시대의 주요 인물들, 조선시대 남명 조식과 내암 정인홍, 합천의 향교와 서원, 임진왜란과 합천, 합천의 대표적인 고건축, 합천의 3·1운동 등 합천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기획전시실은 특별기획전을 전시하는 곳으로, 2018년 『다라국의 여명』을 개최하여 다라국의 건국 이전부터 초기가야를 형성했던 시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전시하였다.

야외전시실에는 합천 삼가M2호분을 실물크기로 복원하였으며, 고려 후기에 제작된 대지리사지 석탑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위쪽 산책로를 따라가면 옥전고분군을 관람 할 수 있다.

합천박물관은 상설전시와 학술대회, 기획전시뿐만 아니라 박물관대학, 어린이박물관학교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창녕박물관 외부전경

창녕박물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34 개관일 : 1997.7.2.

시설안내
지상 1층: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어린이박물관
지하 1층: 수장고, 학예연구실, 자료실 등
옥상: 옥상정원, 전망대
야외: 계성고분이전복원관, 야외전시장 등

관람시간 : 09:00 ~ 18:00 (17시까지 입장)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창녕박물관은 1996년에 창녕유물전시관으로 개관하여 1997년에 창녕박물관으로 승격되었다. 창녕박물관은 비화가야의 유물과 창녕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관·전시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11,000여점으로 현재 전시실에 공개되어 있는 유물은 1,000여점에 달한다. 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의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설전시실에는 창녕 역사의 첫 단추인 신석기시대 창녕 비봉리유적(사적 제486호)에서 출토된 통나무 배를 비롯하여 청동기시대 고인돌 재현품 등 창녕의 선사시대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삼국시대 창녕의 주요유적인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 영산고분군, 계성고분군과 창녕 전 지역에서 확인되는 중소형 집단의 분묘유적, 창녕 여초리토기가마 유적 등 토기 생산유적 등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이 전시물들은 가야권역과 신라권역의 접경지대에 입지해 신라와 가야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비화가야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창녕박물관은 2012년부터 꾸준히 특별기획전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귀천-초곡리 사람들은 저승갈 때 무얼 가져갔을까?』(2012년) , 『이방인의 꿈-창녕 계성리에 찾아온 백제사람들』(2013년) , 『비사벌의 지배자-그 기억을 더듬다』 (2015년), 『창녕박물관 23년의 기록』(2018년) 등 다양한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하여 창녕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 옥상에는 유물의 확대모형과 교동고분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야외전시장에는 굵은고리귀걸이 등 중요한 유물이 다량 출토된 계성고분을 이전·복원한 계성고분이전복원관을 비롯하여 초곡리유적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방형구획무덤, 영산 서리유적에서 확인된 돌방무덤 등 창녕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유적을 실물크기로 복원전시하고 있다.

창녕박물관은 창녕의 역사·문화를 선두적으로 연구하여 각계·각층에 다양한 볼거리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녕지역 문화유산을 교육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혁
1996 – 유물전시관 개관
1997 – 창녕박물관으로 등록
2018 – 증축 및 리모델링 후 재개관

상설전시실과 야외전시 모습







사진제공 : 창녕박물관

가야사 총론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GAYA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가야고분군 연구총서』를 기획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총 7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56명의 전문연구자들이 최근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전문성을 갖춘 일반교양서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가야사총론(1권)'은 가야사의 시기구분과 공간적 범위, 가야의 성립과 발전, 가야 각국의 발전과정과 멸망, 가야와 주변국, 가야와 중국 · 왜, 가야의 순장, 가야의 왕성과 취락, 가야 기록으로 구성하였다.

'가야사고분군 I (2권)'은 가야고분군 형성과정과 경관의 특징, 김해 대성동고분군 목곽묘의 변천과 특징, 함안 말이산고분군의 묘제와 출토유물,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묘제와 특징, 가야 고총고분의 입지와 축조 기술, 고구려 고분과 비교해 본 가야고분의 세계유산적 가치, 가야와 신라 묘제의 비교, 유라시아고분과 비교를 통해 본 가야고분의 OUV로 구성하였다.

'가야사고분군 II (3권)'은 문헌으로 본가야의 대외 교류, 가야의 대외교류, 가야 토기, 가야 금공문화의 전개양상, 가야 마구, 가야 갑주, 가야 무기, 가야 생업, 가야 철 생산으로 구성하였다.

'가야사고분군 III (4권)'은 김해지역의 고대묘제 변천과 대성동고분의 특징, 아라가야 권역 내 말이산고분군의 대표성 검토, 옥전고분군과 다라국사,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변천과 특징,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형성과정,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 서부경남지역 목곽묘 연구, 가야 북부지역 석실묘 연구로 구성하였다.

'가야사고분군 IV (5권)'은 유적 유물로 본 일본열도 속의 가야문화, 왜계석실로 본 백제–가야–왜의 교류양상, 가야와 왜의 금공품, 고고학으로 본 왜와 가야의 교섭 양태, 동아시아에서 말 문화의 동전(東傳)과 가야, 일본열도의 초기 스에키 생산, 가야의 철 생산과 교역으로 구성하였다.

'가야사고분군 V (6권)'은 가야사의 흐름, 가야의 고분과 왕묘, 가야 철기문화의 세계유산적 가치, 김해 대성동고분군의 변천과 가락국사회, 묘제 및 출토유물로 본 안라국 왕묘와 위계,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대가야의 건국신화, 합천 옥전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위상과 변천,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계층구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가야사고분군 VI (7권)'은 중국 춘추전국~한대 주요고분, 중국 위진·남북조 주요고분, 흉노·고구려·서하 고분 개설, 중국 위진십육국 북조묘장, 남경 및 그 주변지역 육조묘장 개관, 중국 당 시대의 제릉과 그 유산 가치, 가야와 일본의 고분문화, 모즈·후루이치고분군으로 본 왜와 가야의 교류, 동아시아 가마의 계보로 구성하였다.

배포처
『가야고분군 연구총서』는 도서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배포

원문정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자료실 (http://www.gayatumuli.kr)에서 이용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개요

1. 목적

가야역사문화센터는 영·호남 가야문화권 유적·유물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야사 가치의 재조명을 위한 정책연구 및 기관 간 컨트롤 타워 역할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건립이 진행 중이다.

2. 기간

2020년 ~ 2023년 완공예정

3. 장소

건립부지는 김해시 관동동 452-3번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규모는 부지면적 6,060㎡, 연면적 10,100㎡의 지하 1층과 지상 4층이다.

4. 주요역할

센터의 주요 역할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영·호남 가야문화권 전체의 대표 아카이브 역할이다. 발굴보고서 및 발굴기록물(도면·사진·영상 등)을 수집·보관하고 비귀속대상문화재(학술문화재)의 통합 보관을 위한 수장 기능을 하게 된다. 둘째, 아카이브를 활용한 연구 및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다. 발굴기록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으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굴기록물을 활용한 연구 및 가야사 교육 기능을 하게 된다. 셋째, 전시·체험을 통한 가야사 관련 대국민서비스 역할이다. 매장문화재 발굴콘텐츠와 발굴기록자료 등의 활용을 통하여 전시와 체험학습을 하게 된다.

센터건립으로 가야문화권 주요 유적 출토 학술자료 및 발굴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야사 연구의 활성화 및 가야 역사문화의 대국민 향유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국토지리 정보원 맵]

박종익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30년사 발자취

회고와 전망

창원문화재연구소의 태동

1990년 1월 3일 문화재관리국 직제개정에 따라 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으로 경주, 부여연구소와 더불어 창원문화재연구소가 신설되었다.(대통령령 제12896호) 경남, 부산, 울산지역의 중요유적 보존 및 학술조사연구와 출토유물의 관리 및 과학적 보존처리를 설립목적으로 삼았다. 1990년 6월 16일 창원시 사림동에 있는 순흥안씨 고택을 활용한 '창원의 집' 내에 가설건물을 마련하여 개소하였다. 당시 개소 지역을 놓고 김해, 진주 등 여러 지역이 물망에 올랐으나 도청 소재지인 창원을 선택하였다.



올해로 개소 30주년을
맞이하였다.
벌써 강산이 3번이나 변할 정도로
많은 세월이 흘러갔으니 우리
연구소를 거쳐 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다.
오늘의 우리 연구소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1990~2000년 사이의 활동

가야문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합천 옥전고분군, 부산 복천동고분군, 김해 양동리고분군 등 주요 가야고분에 대한 학술발굴조사가 당시에는 대부분 대학박물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개소와 동시에 관련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1990년 9월 주요 발굴대상유적으로 김해 구산동고분군 등 36개소로 정리하고 첫 발굴대상지로 창원시 내에서 유일하게 봉토분을 가진 가음정동고분을 선택하였다. 1990년 연말에 시작된 단기간의 발굴조사에서 가야시기의 토광묘와 횡구식석실묘를 확인하였다.

이후 아라가야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삼고 1991년부터 함안 말이산 일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라가야 연구와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함안 도항리 · 말산리고분군에 대한 개별 봉토분 확인 조사와 그 주변지역 정밀지표조사 도중 현 34호분 주변에서 동심원의 암각화가 새겨진 고인돌 상석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기회로 암각화고분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34호 석실뿐만이 아니라 고분 주변에서 청동기 시대 고인돌 유구와 유물을 확인하는 성과를 확보하였다.

이후 겨울에는 가야의 산성으로 알려지고 있던 함안 성산산성의 축조시기와 구조 확인을 위한 남문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현문 형태의 남문과 체성의 축조방법, 신라의 귀면와 등을 수습하였다.

1992년부터는 함안 성산산성과 함안 도항리·말산리고분군에 대한 연차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함안 성산산성 동문지 일대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1992년 6월 어느 날 해동아파트 신축부지에서 공사 도중 훼손된 유물들이 수습발견 신고됨으로써 현장조사에 이어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5세기 중후반의 목곽묘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되는 완벽에 가까운 말갑옷을 수습하게 되어 마갑총으로 명명되고 그 자리는 아직도 아파트 단지 내에 보존되고 있으며, 가야유적에 대한 우리 연구소의 발굴조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건이다.



학예연구사 2명과 연구원들의 노고로 많은 유적을 발굴하고 조사·연구하는 성과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었다.

창원지역에 자리한 만큼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도 계속 진행되어 가음정동 패총과 지석묘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당시까지 국립진주박물관을 비롯하여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등 박물관이 주축이 되어 가야지역 발굴조사

THE 30YEARS STORY

를 실시하는 상황이기에 여러 발굴현장을 방문하는 등 서로의 조사방법과 활동에 함께 동참하고 친목도 다져 나가던 시기였다. 또한 창원문화재연구소의 입지와 위상을 드높이고자 대학교와의 연합으로 가야권역별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금관가야권, 소가야권, 아라가야권, 대가야권 등의 문화유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관리대상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가야권역별 문화유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관리대상으로서의 가치를 확보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에서 수습된 유물 중 먹으로 쓰여진 1차 사료인 목간이 다수 확인된 이후 보존처리를 거치고, 적외선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묵서된 글씨를 판독하게 되었다. 27점의 목간에서 신라의 관등과 지명들이 확인됨과 더불어 신라산성의 특징적인 축조기법인 기단보축이 여실하게 확인됨에 따라 함안 성산산성은 신라에서 축조한 산성으로 명백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목간의 중요성을 인식한 여러 전문가의 판단과 요구에 힘입어 한중일 삼국이 참가하는 목간 학술대회를 1999년 11월에 추진하게 됨에 따라 목간 보존처리와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에는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보존처리와 연구를 위해 일본 와세다대학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교류를 실시하여 제법 연구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한국목간이 일본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목간이 출토되는 현장조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함안 성산산성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함안 도항리고분군 발굴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아라가야 집단의 성격규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다양한 성과와 아라가야의 특징적인 순장습속과 유물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뒤이어 1995년 이후에는 특히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창원 봉림사지 발굴조사를 계속하여 삼층석탑이 있던 자리와 당시의 건물지와 유물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아라가야에 이어 소가야권으로 조사지역을 옮겨 고성 내산리고분군에 대한 고분군의 정확한 분포조사(62기의 봉토분 확인) 실시 이후 사적 지정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고, 그 중 중요지점의 고분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집중하게 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다양한 성격의 고분구조와 조성방법, 주변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집중적인 조사 외에도 함안 윤외리고분군, 함양 손곡리고분군, 울산 조일리고분군,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한 선사유적 등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영역과 입지를 넓혀 나갔다.

지방연구소로서는 처음으로 청사건물을 가짐

1995년 창원시 용호동 공공업무지구에 신축청사가 건립되었다. 870 여 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연면적 1,215㎡)을 신축하고 정식으로 창원문화



재연구소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지방연구소로서는 처음 청사건물을 가지게 되었고, 11월 24일 신축청사 준공식을 하게 되었다.

2001~2010년 사이의 활동

2000년 초반에도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이어 나갔다. 고성 내산리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가 2005년까지 진행되어 총 7차례의 발굴조사에서 12기의 봉토분 조사를 진행하여 분구묘라는 특징적인 봉토 축조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다. 영락이 달린 대부장경호를 비롯하여 소가야의 특징을 잘 드러낸 수평구연호, 유공광구소호, 고배, 특히 다양한 유리구슬들이 많이 수습되었다.

사지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여 울산 운흥사지와 산청 지곡사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박종익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회고와 전망

였고, 김해 봉황동 일대에서의 단독주택 건립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것이 이후 추진된 가야사 복원 국정과제의 인연으로 자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대에는 비화가야의 고도인 경남 창녕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창녕 송현동고분군의 복원정비사업에 앞서 우리 연구소는 6, 7호분의 연접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다. 이 고분은 가야시기 창녕지역 고분문화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고분으로 판단되어 국가연구기관이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조사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30일간의 오랜 시간이었다. 표형분의 구조와 봉토의 축조방법, 매장주체부 구조, 유물매납 상황 등에 대한 치밀한 조사 결과 놀랄만한 성과가 있었다. 4차 현장설명회(2005.6.)에서는 7호분 석실(횡구식) 내부에서 목관을 반출하는 과정과 출토유물을 공개하여 조사과정과 유물(금속류, 목제류, 토기류 등 750여 점)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일반인에게 제공하였다. 축조시기는 5세기 후반 ~ 6세기 초로, 창녕지역이 신라화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유적이며, 남쪽의 6호분이 먼저 축조 된 이후 6호분의 북쪽 봉토 일부를 제거한 후 7호분을 연접시킨 표형분이다. 특히 녹나무 목관은 국내에서 처음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를 다시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뒤이어 창녕 지역에서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국보 제34호) 일대에 대한 주변 정비를 위한 사전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금동풍탁 등의 중요유물 수습과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문화층과 건물지 등을 확인하였다.

역시 함안 성산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도 재개되어 성내 건물지 존재 여부와 동문지 일대 목간집중출토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신라 목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역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2004년에는 문화재청으로 승격된 이후 2007년에 정식으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로 개명을 하였다. 이는 그동안 가야문화권역에서의 중요 학술발굴조사와 연구활동으로 그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게 됨으로써 가야문화 계승발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소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연구소를 김해 지역으로 옮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가야사 2단계 사업 등의 추진이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여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2004년 문화재청으로 승격
2007년 정식으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로 개명





2003년 2월에는 출토유물보관동(지하 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2,871㎡)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용호동 현 청사 내에서 진행되었고, 2004년 4월 30일에는 준공식을 가져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수장고와 출토유물의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1년 이후의 활동

2010년대 초반부터 창녕 영산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정비까지 완료하였다. 2012년도에는 고령으로 발굴조사 지역을 전환하여 주산성 아래의 주능선에서 벗어난 반대편 남쪽 구릉상에 있는 제518호분의 봉토축조 방식과 다곽식 유구의 축조과정과 출토유물(금제이식 등)을 수습하였다.

2013년부터는 다시 창녕 지역의 교동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THE 30YEARS STORY

특히, 교동고분군 15호분 발굴조사에서 순장공간에 보존되어 있던 순장인골에 대한 학제간 연구로 송현이를 복원함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후반부에는 함안 성산산성 동문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함안군 대행사업으로 실시하여 동문지 일대는 조선시대까지 계속 증개축하여 사용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서문지는 예상지점보다 훨씬 남쪽 지역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함안 성산산성과 창녕 송현동고분 발굴조사 목간을 비롯한 많은 목제품들이 발견됨에 따라 목기 보존을 담당하게 되었다. 적외선카메라, 동결건조기, X선 촬영기 등 많은 보존처리 기자재를 확보하여 우리 연구소 출토유물 뿐만 아니라, 주변 발굴기관의 유물도 어느 정도 처리해 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 되었다.

2017년 7월부터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본격적인 가야유적 발굴조사를 추진하였다.

금관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봉황대유적에 대한 연차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함안 아라가야의 왕도로 추정되는 가야리유적은 경작을 위한 작업도중 우연히 목탄 등의 층위가 발견되었다. 이에 우리 연구소는 긴급 수습조사를 거쳐 정식으로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판축기법에 의한 토성벽이 축조되고 내부면에서는 수혈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적(사적 제554호)으로 지정되어 향후 연차 발굴조사와 가야리유적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아라가야토기의 생산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법수면 일대에 산재하는 가마터 중 1개소를 선정하여 발굴조사를 집중하여 4세기대에 조업한 1기의 가마와 폐기장을 확인하여 약 500여 박스의 토기편을 수습하였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는 5세기 후반경 지배자급의 묘로 추정되는 제63호분(매납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미도굴 무덤)의 개석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일반인에게 공개(2019)되어 향후 조사를 더 흥미롭게 하였다.

현장조사와는 별도로 가야유적의 분포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남, 전북지역의 관련유적 현황을 파악하고(2018),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조사와 연구, 활용 등 12개의 세부과제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가야관련 자료의 집대성을 추진하여 가야자료총서〔국내편(7권), 국외편(3권)〕를 발간하여 가야사 연구를 위한 자료를 망라하였다.

가야사 기획학술심포지엄을 계획하여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가야(2018, 서울), 호남과 영남 경계의 고고학(2019, 순천)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가야유적 현황파악을 위한 정밀분포조사 사업으로 남강 상류지역의 남원 청계리고분군 등 12개소를 조사하여 추진하여 기존에 알려진 고분수보다 더 많음을 확인하였다.

가야역사문화연구총서 발간은 2019년에 시작하여 연구사, 시대사, 분류사, 각국사 등으로 나누어 2023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나주문화재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가야사 관련 11개소



가야자료총서 발간
가야사 기획학술심포지엄 실시
가야매거진 발간
가야역사문화연구총서 발간예정

의 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업을 구성(2018)하고, 대학생들의 가야연구 증진을 위한 가야논문 공모(2019~)도 추진하고 있다.

가야사 관련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매거진 가야를 발간(2019)하였다.

이러한 조사 성과들을 바탕으로 가야역사문화센터의 주요기능인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에 널리 이용될 전망이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김해시에 추진 중인 가야역사문화센터는 영호남 가야문화권 전체의 대

박종익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회고와 전망

표 아카이브 기관으로 아카이브를 활용한 연구 및 교육의 장과 전시체험을 통한 가야사 관련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등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현 청사 부지 내에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09㎡)를 건립하기 위하여 2015년 건립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2016년 기공식을 하고, 2017년 12월에 준공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소 청사는 ㄷ자 형태의 배치를 가진 철근콘크리이트 건물로 출토유물의 안정적인 수장공간 확보와 쾌적하고 안전한 보존처리 환경 조성과 연구 공간, 회의 공간, 도서자료실과 업무공간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현재 가야토기, 목간 등 출토유물 약 6,000 여 점의 유물을 수장고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각종 학술행사와 보고서 발간

가야문화권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그간 가야의 각 권역별에 대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가야시기 고분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로 창녕지역의 역사고고학적 성격(2001), 고대 함안의 사회와 문화(2002), 가야와 그 전환기의 고분문화(2006), 묘제와 출토유물로 본 소가야(2006), 가야고분 조사연구 발표회(2012~2015) 등이다. 그리고 목간을 중심으로 한 학술활동이 많았는데,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의 내용과 성격(1999)을 시작으로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의 의의(2007),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2009), 한일 고대 목기유물의 연구성과와 향후 과제(2013),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국제적 위상(2018) 등의 학술행사로 국내 목간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유물대여는 우리 연구소가 발굴조사한 유물 중 시기와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목간), 국립경주박물관(목간), 국립김해박물관(목간 등), 부산복천박물관(장경호 등), 창녕박물관(송현이, 행엽 등), 함안박물관(은제과대장식 등), 고성박물관(토기류 등), 고령박물관(이식 등) 등에 20여회에 걸쳐 특별전이나 상설전시를 위해 대여하기도 하였다. 각 조사지역 유적과 유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진자료를 대여함으로써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특히, 경남지역에 산재하는 통신수단의 하나였던 봉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로 문헌자료 편과 현지조사 편을 각각 발간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울산 운흥사지 발굴조사 이후 이 사찰의 목판간행 사실을 알고 관련 목판자료를 집대성한 책자를 발간(2003)하여 그 연구범위를 넓혀나갔다.

발굴조사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은 물론이고, 중요유물에 대한 소개를 위한 도록과 연구총서 발간, 우리연구소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가야이야기 발간, 학술행사 내용의 자료집 발간 등으로 일반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끝없이 진행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창원, 함안, 창녕지역의 문화유산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소책자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지역민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목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대목간, 한국 목간자전, 한국의 고대목간(개정판), 한국의 고대목기 자료집, 함안 성산산성 목제유물 수종분석, 목간 발굴에서 보존까지, 나무 사람 그리고 문화 등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하여 목간 이해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러한 발간자료들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누리집(nrich.go.kr/gaya)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하고 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목간 이해에 선도적인 역할

우리 연구소의 도서실에는 가야 관련 서적을 비롯하여 각종 발굴조사 보고서, 학술회의 자료, 학회지, 단행본 등 약 3만 여 권의 관련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18년 사다모리 히데오(定森秀夫, 일본 전 사가현립대학교 교수)로 부터 가야관련 도서 등 총 15,137권의 도서를 기증받아 기증도서 목록집을 발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애용이 있기를 바란다.

THE 30YEARS STORY

연구소의 사람들

올해로 개소 30주년을 맞이하였다. 벌써 강산이 3번이나 변할 정도로 많은 세월이 흘러갔으니 우리 연구소를 거쳐 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다. 오늘의 우리 연구소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계시고, 현직에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공직을 벗어나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현재 문화재청과 그 산하기관에서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아니면 관련 분야에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소에 오랜 기간 근무한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번 근무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단기간 근무하신 분들도 있으니 회자정리, 이자필반이라 하였던가. 세상사 돌고 돌아 원위치로 찾아가며, 그리워하는 것을....

연구소 체육활동이나 워크숍, 유적답사 등에서는 직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파른 산을 땀으로 범벅되어 오른 후 내려와 함께 시원한 막걸리 한잔하면서 웃던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우리 연구소를 거쳐 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분들

향후 활동의 전망 (새로운 가야문화 정립을 위하여)

가야는 한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 600년간 존속했던 고대왕국이다. 다만 이들이 단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여러 정치세력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연맹 또는 연맹체를 형성하였다. 1~6세기에 당당하게 한반도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가야인들의 삶과 문명을 이제부터 서서히 밝혀나가는 작업에 우리 연구소는 매진하게 될 것이다.

'오래된 과거를 내일에 되살린다'라는 모토로 과거의 흔적을 철저히 규명한 결과물을 현재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우리네 활동적인 미래 삶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990년 초 가야문화권 정립을 위해 발족되었던 창원문화재연구소가 이제 30년을 넘기고 있다. 많은 경험과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 그 감을 잡고 있을 그러한 때 가야문화권 조사연구가 2017년 7월 국정과제에 선정되었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가야사 연구를 위한 국가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자연히 자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술조사뿐만 아니라 가야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하고,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도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도 제각기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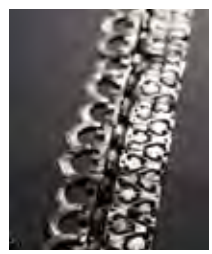
가야고분의 세계유산등재 사업 등이 자연히 부상하게 되었고, 가야유적에 대한 전체 현황 정리와 가야문화권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마스트플랜을 수립해야 할 막중한 소임을 맡았다. 가야사업의 결과물의 본격적인 운용과 활용을 위한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도 이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영남지역의 중심에 자리하여 사방으로 그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지리적 이점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인 중심뿐만 아니라 가야사 연구사업의 중심기관으로 자리하여 그 활동의 생명력을 무한하게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도 이전에 비해 많이 확충되었다. 신라권, 백제권 등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을 성과를 확보하기 바라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변에서 격려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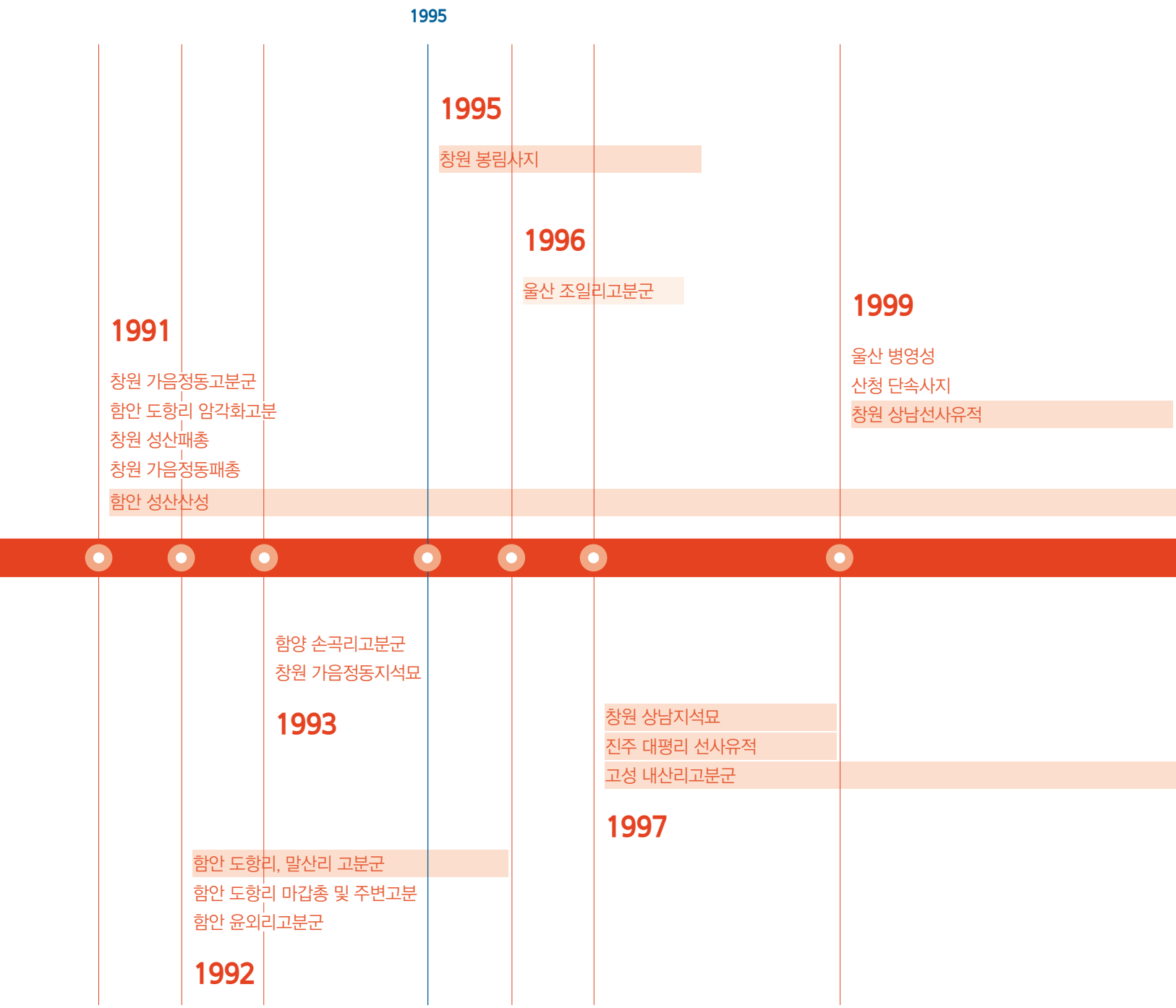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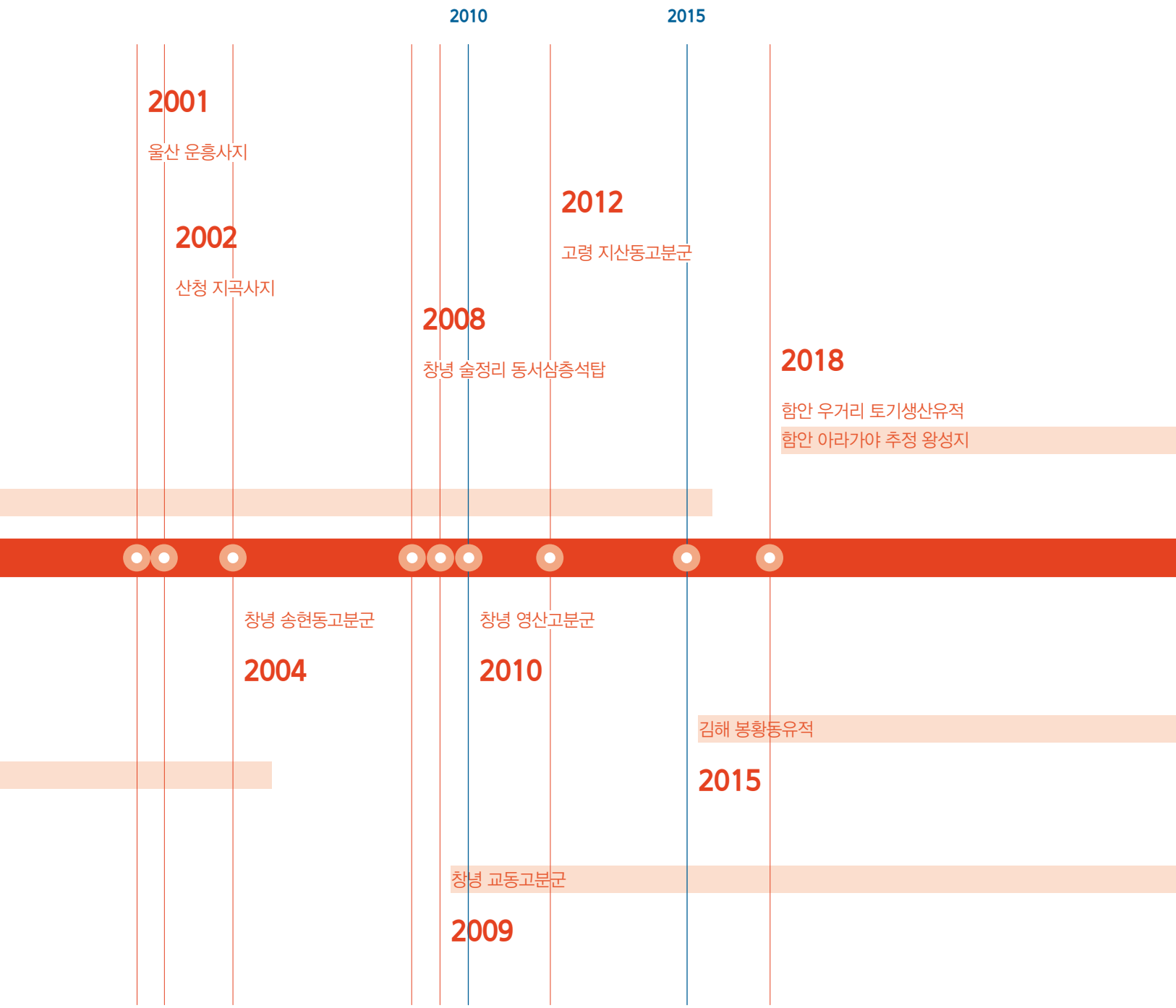


가야사 동행길

연도별 주요성과



THE 30YEARS STORY



가야사 동행길

기사 스크랩

Article Headline

문화재 훼손막게 체계적관리
지방 문화재연구소 4곳 신설
동아일보 1990.2.5

창원 가음정동 「당산」고분군
가야초기유적 판명
매일경제 1990.12.24

선사시대
암각화 발견
경향신문 1991.3.6

김해서만 발견된 가야
토광목곽묘 함안지역서 첫 발굴
동아일보 1992.7.6

국내최대'토광목곽묘'발굴
길이890㎝… 아라가야 유물
한겨레 1992.7.7

가야 수장급
분묘 발굴
한겨레 1994.8.20

아라가야고분서
인골 5구 발굴 함안
동아일보 1994.8.20

국내최대 수혈식
석실 발굴
동아일보 1995.6.9

나말
금동·청동불 출토
경향신문 1996.2.1

취재수첩 '역사복원' 외로운 작업…
아직은 모든게 의문투성이
경향신문 1996.7.11

진주남강유적서 대규모공방
발굴 청동기때 '산업단지'
경향신문 1998.6.3

창원문화재연구소,
아라가야 학술대회
연합뉴스 2002.9.30

함안 성산산성서 신라
목간 65점 출토
연합뉴스 2002.11.15

산청 지곡사지
유물 발굴
연합뉴스 2003.8.4

창원문화재연구소
유물보관동 완공
연합뉴스 2004.4.30

가야 왕릉추정 고분 발굴
한겨레 2004.7.30

창녕 송현동 고분서
제사유물 대거 발굴
경향신문 2004.10.11

THE 30YEARS STORY

창녕 송현동 고분서 금귀걸이, 칠기류 등 다량 출토
연합뉴스 2004.10.11

목관·순장유물 가야비밀 열쇠로
한겨레 2004.10.17

창원문화재연구소, 출토유물 170점 공개
연합뉴스 2005.5.3

가야시대 유물 수백점 출토
세계일보 2005.6.21

창녕 송현동 고분 유물 300여 점 출토
연합뉴스 2005.6.21

삼국시대 희귀 '화살촉묶음' 발굴
경향신문 2005.6.21

창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대 목간' 발간
부산일보 2006.7.14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창녕 송현동고분군 6.7호분 발굴조사 개보 발간
뉴시스 2006.8.2

'출토유물과 보존과학의 만남' 발간
노컷뉴스 2006.8.17

「창녕 송현동고분군 6·7호분 발굴조사 개보」발간
문화재청 2006.8.2

'가야와 전환기 고분문화' 학술대회
연합뉴스 2006.11.7

신라시대 '목간' 형태 문서 76점 추가 발굴
경향신문 2007.12.12

귀고리 찬 1천500년전 가야인 인골 발굴
연합뉴스 2007.12.20

6세기 신라 '부엽공법' 전모 첫 확인
문화일보 2008.11.19

1500년전 산간 농기구 '고써래' 공개
연합뉴스 2008.12.31

문화재청, 성산산성 발굴 성과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2009.10.27

함안 성산산성에서 다면목간 첫 출토
연합뉴스 2009.11.1

과학이 밝힌 1500년전 '가야 여성'의 삶
문화일보 2009.11.5

가야사 동행길

기사 스크랩

Article Headline

창녕 돌방무덤서 1500년전 은제허리띠 출토
아시아경제 2010.4.8

고려 연꽃 씨앗 700년 만에 '활짝'
경향신문 2010.7.7

가야문화재硏 '목간자전' 완성 등
문화일보 2011.12.29

대구박물관 '나무와 사람' 성산산성 출토 목기 특별전
뉴시스 2012.12.4

가야문화권 문화재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
뉴시스 2013.12.26

가야문화재연구소, 20일 합천지역 고분 조사 발표회
뉴스1 2014.6.19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한국 목기자료집Ⅲ' 발간
뉴스1 2014.11.25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보고서Ⅴ' 발간
뉴스1 2014.11.28

창녕서 5세기 중반 추정 가야 고분 21기 새로 확인
동아일보 2015.9.4

금관가야 왕궁 실체 밝히는 발굴조사 첫 삽
뉴스1 2015.9.10

김해 봉황동유적서 금관가야 권력층 쓰던 장신구 등 출토
뉴스1 2016.11.22

가야문화유산 보관하는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준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12.26

경남도 "찬란한 가야사 복원, 20년간 1조 투입"
오마이뉴스 2017.12.28

'전설의 왕국' 아라가야 흔적 찾았다… 높이 8.5m 대규모 토성 발견
동아일보 2018.6.8

함안서 길이 11m 아라가야 대형 오름가마 발견
경남도민일보 2018.12.14

김해 봉황동 유적서 4~5세기 가야 집모양토기 출토
김해뉴스 2019.1.9

「함안 가야리 유적」 사적 지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0.21

도굴 없이 1500년 버틴 비화가야 최고지도자의 무덤 뚜껑 열어보니
경향신문 2019.11.28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 등 8건 보물 신규 지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6

'거류산 마애불' 道 유형문화재 지정
부산일보 2020.2.20

THE 30YEARS STORY

홍성빈 초대 소장님을 비롯하여 안희균, 신창수, 김선태, 연웅, 지병목, 최맹식, 윤광진, 강순형, 김용민, 이주헌, 이만희, 박왕희, 김삼기 소장님 모두가 앞장서서 연구소의 위상 정립과 새로운 건물 신축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셨다.

초대 학예연구실장으로 부임하신 유마리 선생님을 비롯하여 김성범, 정계옥, 김정임, 최인화, 이은석, 강동석 학예실장님 그리고 학예연구사를 거쳐간 황인호, 김지연, 이성준, 정수옥, 정인태, 최장미, 김정현, 이희준, 신종우...

현장에서 늘 앞선 경험을 토대로 조사방향을 알려주고, 합리적인 조사방법을 택하도록 늘 이야기 하던 조희경, 출토유물의 보존처리 업무로 늘 고민하던 안복준, 기계실 운영을 맡았던 이태수, 큰 덩치에 힘겹게 타지에서 고생하신 김복록. 명절이나 휴일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늘 우리 청사를 지켜주신 청원경찰들,

발굴조사와 연구업무를 맡아 많은 고생을 한 강상욱, 강영호, 강지훈, 고은미, 권세영, 김근수, 김시환, 김영미, 김영주, 김의곤, 김철준, 나래, 박수정, 박찬영, 백송이, 서두익, 심은경, 윤경아, 이상구, 이우준, 이윤경, 이지연, 이지혜, 이현애, 임월, 임주헌, 장민지, 장지성, 정연, 정영희, 정준호, 조혜진, 최성일, 최은영, 함형경, 황건식, 황현진, 이헌재, 최헌섭, 유병일, 신양희, 김주호, 박성진, 정대홍, 김상철, 김대성, 정영희, 이현혜, 이승일, 박양주, 김윤정, 전희주, 서정은, 이지희, 손영호, 박선영, 이주연, 김태훈, 전영선, 채상훈, 주우진, 한송이, 강석범, 지영배, 김동현, 정새힘, 전진현, 한기민, 박미정, 이현아, 김형철, 장효성, 강헌모, 송하나, 김경은, 강현정, 박가영, 보존처리에 집중하던 양석진, 권길선, 권미희, 손병화, 이소희, 정아름, 김주경, 양은희, 김상언, 조아현

모든 발굴현장에 참여하셨던 현장 아저씨, 아주머니들...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신 김상혁, 김창수, 이창우, 이용수, 유철, 이종군, 김기숙, 이문갑, 김영대, 김미란, 하경식, 이달희, 김창권, 배현정, 권주향, 임종성, 배양화, 배수현, 윤성호, 이상순, 백지연, 석정미, 윤선리. 늘 관용차 관리와 모든 현장으로 안전하게 이끌어주었던 이승윤 그리고 지원업무를 한 이찬호 아저씨, 식당을 도맡아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졌던 옥정순 여사님, 청사 미화에 힘써주신 유학선 여사님 등등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가 되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되어, 30년을 거쳐 오는 동안, 이 분들이 함께 하였기에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출처 : 대한민국 여행사전]



1. 허황옥 이곳에 잠들다 – 수로왕비릉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왕비 허왕후의 무덤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허왕후는 아유타국 출신 공주다. 16세에 바다를 건너 김수로왕에게 시집와서 왕비가 되었고, 태자 거등공을 낳았다. 157세까지 살았는데 죽은 후 구지봉 동북 언덕에 장사했다." 라고 한다. 현재 수로왕비릉 구역 내에는 허왕후가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올 때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파사석탑이 있다.

수로왕비릉은 임진왜란 때 도굴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현재 능 앞에 존재하는 비석과 상석 등은 인조 25년(1641)에 정비하면서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1963년 사적 제74호로 지정되어 관리·보존되고 있다.

[출처 : 김해시청]







[출처 : 김해시청]

2. 금관가야 역사의 탄생지 – 구지봉

가야의 시조 수로왕의 건국 설화가 서려 있는 구지봉. 구지봉은 마치 거북이가 엎드린 형상과 같아 이름 붙여졌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가야건국설화에 따르면 "가야 땅을 다스리던 아홉 추장이 구지봉에 모여 구지가*를 부르며 춤을 추며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에서 알 여섯 개가 담긴 금합이 붉은 실에 매달려 내려왔다. 이튿날 그 알 여섯 개가 차례로 깨지며 아이가 하나씩 나왔다고 한다. 그 가운데 맨 먼저 나온 아이가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이 되었다"고 전한다. 구지봉은 2001년 사적 제429호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삼국유사》 제2권 〈기이(紀異)〉 제2가락국기(駕洛國記) 구지가는 작자, 연대 미상의 고대가요로 영신군가, 구하가 또는 구지봉영신가라고도 불린다. 원가는 전하기 않고 관련설화와 4구체의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조에 전한다. 구지가에서 언급되는 '거북이'와 '머리'의 상징적인 의미는 거북이는 장수하는 동물로 신령스러운 존재를 상징하는 영물이고 머리는 우두머리를 상징한다. 즉 구지가의 내용은 임금을 바라는 집단의 바램을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지가는 현전 최고의 집단무요로 주술성을 지닌 노동요로도 볼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포스터 [출처 : 국립김해박물관]



국립 김해박물관 전시실과 야외 전경 [출처 : 김해시청]

3. 가야 문화재의 보물창고(寶庫) –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은 가야문화유산을 전시·관리하기 위해 건립된 고고학 중심 박물관이다. 부산·경남의 선사시대 문화상과 가야의 성장기반이 된 변한, 가야의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건물 외벽을 철판으로 제작하여 철의 왕국–가야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상설전시는 총 7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6개의 전시실에서 전국 각지에서 확인된 가야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다.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특별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구분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박물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성동고분군과 대성동 고분박물관 [출처 : 김해시청]



[출처 : 김해시청]

4. 금관가야 최고지배층이 잠든 곳 – 대성동고분군·대성동고분박물관

대성동고분군은 '애(왜)꼬지'*라 불리는 구릉에 위치한다. 전기 가야의 중심고분군으로 금관가야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에서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널무덤→덧널무덤→돌덧널무덤→돌방무덤 순서로 금관가야 무덤이 변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성동고분은 금동관, 동복, 금동제허리띠, 로만글라스편, 파형동기, 통형동기, 벽옥제석제품, 동촉 등과 같이 외래유물이 함께 부장되어 대성동 세력이 바다 건너 중국,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라·가야권역에서 제일 먼저 순장풍습이 확인되었다. 1991년에 고분군 구릉과 그 주변일원이 사적 제341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은 금관가야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인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전시·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대성동고분군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금관가야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2017년 5월에 최신발굴성과를 공개하기 위해 재개관을 하였다.

상설전시관은 다섯가지 테마로 대성동고분군의 발굴 현황과 수로왕 이전의 무덤에 대한 자료 전시,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된 고분들의 묘제형식과 부장품, 순장풍습에 대한 내용 등을 전시하고 있다. 야외전시관은 왕묘로 추정되는 29호분, 39호분을 발굴 당시 상태로 복원하여 전시한 공간으로 가야무덤의 변화상과 유물배치양상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애꼬지 : 김해지역 사람들은 옛날부터 대성동고분군을 '애꼬지'라 불렀다. 애꼬지의 뜻은 '작은 구지봉'이라는 뜻으로 이곳이 구지봉과 같이 신성한 장소임을 증명한다.

5. 수로왕을 알현하다 – 수로왕릉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무덤으로 정확한 축조연대는 알 수 없다. 경내는 숭선전과 안향각·전사청·신도비각·홍살문·숭화문 등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왕릉은 고려 문종 때에 부분적으로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세종 28년(1446)에 표석을 세워 보호구역을 넓혔다.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갖추게 된 것은 조선 선조 13년(1580)에 당시 영남관찰사이던 김해김씨 김허수가 수로왕비릉과 함께 대대적으로 정비한 이후부터이다. 이후 인조 25년(1647)에는 왕명에 의하여 허적이 묘비문을 지어 비를 세웠고, 고종 2년(1865)에는 숭선전을 중수하였다. 1963년에 사적 제73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출처 : 김해시청]

6. 우리나라 고고학 조사의 첫 단추 – 봉황동유적

김해 봉황동유적은 1920년도 우리나라 최초로 발굴된 유적인 회현리 패총과 금관가야 최대의 생활유적인 봉황대가 합쳐진 유적이다. 1920년도 발굴 당시 신나라 때의 화폐인 화천이 확인되어 패총의 상한연대를 확인하였으며 함께 확인된 탄화미는 당시의 식생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이외에도 돌널무덤과 독무덤이 확인되었는데 한 개의 옹관에서 세형동검과 청동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봉황대는 가야인의 주거지와 고상가옥, 망루, 선박 등이 확인된 유적이다. 이들 유적은 실물 그대로 복원하여 가야인의 생활상을 생동감 있게 확인할 수 있다.

봉황대는 금관가야의 황세장군과 여의낭자의 비극적인 이야기*의 무대가 된 곳이다. 이와 관련된 장소로 구릉 정상부에 황세바위, 중턱에 여의각이 위치하고 있다. 금관가야 최대의 생활유적지인 봉황대유적은 2001년 사적 제2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다.

*가락국 제 9대 겸지왕(鉗知王) 때 남대정동(南大政洞)에 사는 출정승과 북대사동(北大寺洞:현 대성동)에 사는 황정승은 자식이 태어나면 혼인을 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에 황정승은 아들 세(洗)를 낳고 출정승은 딸 여의(如意)를 낳게 되자 출정승은 마음이 변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속였습니다. 자라면서 여의는 남자 옷을 입고 서당에 다녔는데 이것을 수상하게 여긴 황세는 개라암(황세바위)에 올라 '오줌 멀리가기 시합'을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의는 바위 뒤로 돌아가 마침 그곳에 있는 삼대로 오줌을 누어서 낭패를 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느 여름 거북내(龜川)에서 목을 감게 되자 여의는 더 이상 여자란 사실을 숨길 수가 없게 되어 편지를 물에 거슬러 띄어 보내어 황세에게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출정승도 결국 황세가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으로 믿고 혼약을 맺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황세는 신라군이 침범해오게 되자 출정하여 큰 공을 세우고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왕은 황세에게 하늘장수라는 장군 칭호를 제수하고 외동딸인 유민(流民)공주와 혼례를 시켜 부마로 삼습니다.
여의의 부모는 파혼 당한 여의낭자에게 다른 곳으로 시집가기를 권유하지만 낭자는 끝내 혼자 살다가 24세의 꽃다운 나이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공주와 혼인한 황세 또한 여의낭자를 잊지 못하여 마음의 병으로 그 해에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성안 사람들은 둘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이 매일같이 놀던 개라암에 작은 바위를 얹고 서남쪽의 것은 '황세돌', 동남쪽의 것을 '여의돌'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출처 : 김해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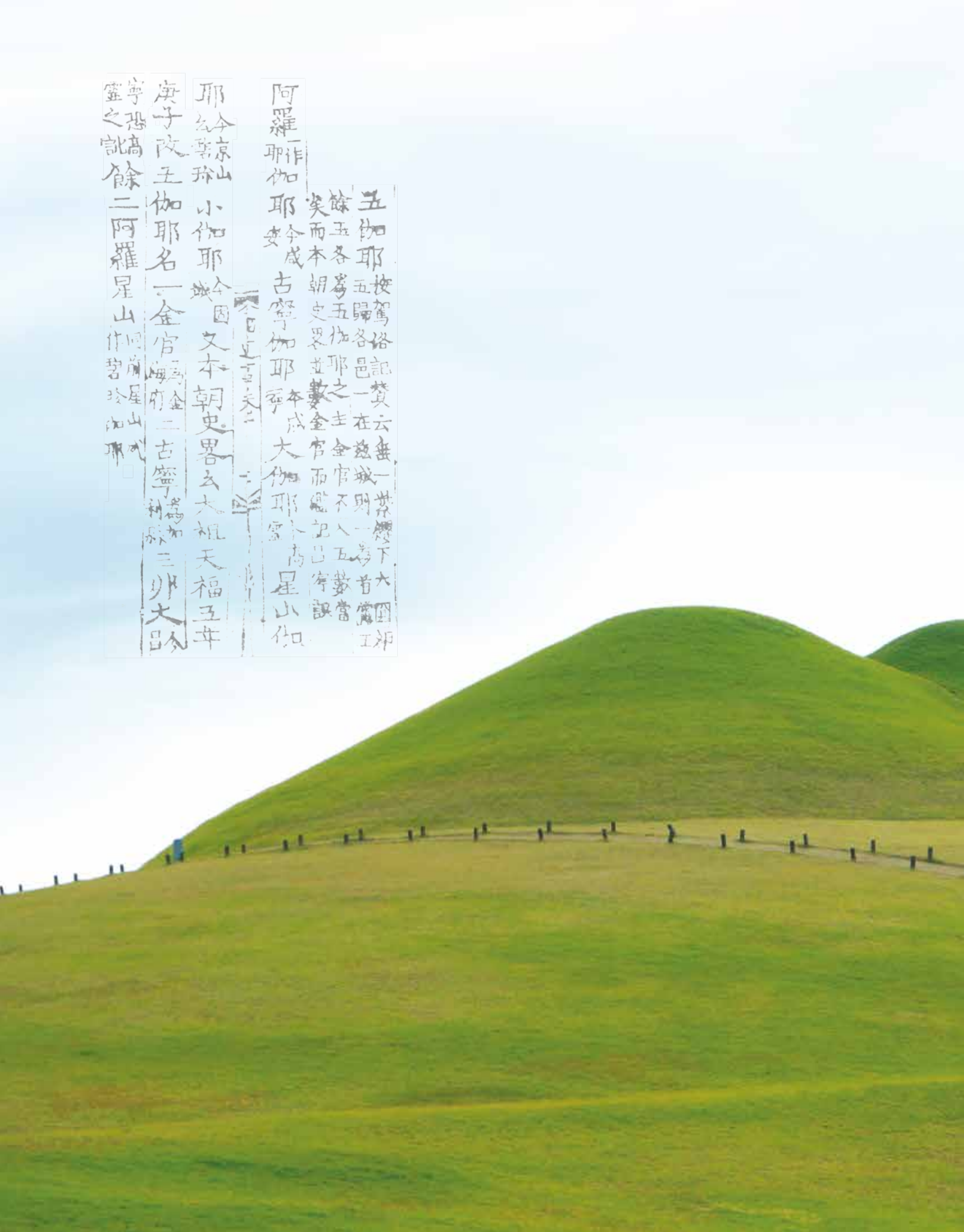
수로왕릉 전경 [출처 : 김해시청]







봉황동유적 전경 [출처 : 김해시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책임운영기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